

문화예술교육 이슈분석

제3호 (2020-11)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현장에서부터 듣는다 ‘코로나 19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현장 지원 방안’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교육 현장 지원방안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	02
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학습자)에게 들었습니다. 윤동희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작가	05
3	학교 예술강사에게 들었습니다. 호중훈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사	10
4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에게 들었습니다.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	16
5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김혁진 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연구위원	22
6	부록 코로나 19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현장 지원 방안 인터뷰 전문 ·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인터뷰 · 예술강사 인터뷰 ·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인터뷰 ·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 인터뷰	30 45 60 68

1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교육 현장 지원방안

위기와 희망 속 암중모색 중인 문화예술교육 현장

추미경 | (사)문화다움 대표

2020년 내내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며 바꾸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은 여전히 전 세계를 암중모색(暗中摸索)하게 하고 있지만, 국가적 방역체계와 시민의 주체적 참여가 월등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상황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우며, 개인과 사회를 둘러싼 당연시되었던 많은 것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와 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상반기 우선 멈춤 상황에 봉착했다가 하반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몰려 진행되면서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방식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당황했고, 정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서둘러 대응정책을 마련하느라 현장은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하느라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지만 되돌아보고 곱씹는 시간을 가지면서 위기보다는 희망을, 언택트 환경에서 더욱 또렷하게 보이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이전과 급격하게 달라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힘을 조금씩 발견해가고 있다.

이번 호 이슈분석 과정에서 비록 전체를 대변하기 어려운 적은 수의 현장인터뷰가 진행되었지만,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예술강사, 운영단체, 현장 관계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코로나 19 상황이 가져다준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타격과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장(場)에 어떤 변화들이 수반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 |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이 질문은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일상이 멈추어지면서 불안감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점차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양한 비대면 방식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결합한 문화예술교육이 불가피해지면서 낯설고 새로운 환경, 기약 없이 기다리는 교육 일정에 불안감이 더해졌지만,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코로나 19를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이 단지 미적인 체험에 머물지 않고 창작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 19로 가장 당황한 영역은 예술강사였을 것이다. 어렵고 낯선 온라인 기반 콘텐츠 제작과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정서적 교감이나 소통이 제한적임에 답답해하고, 기술적 서투름에 좌절하는 경험을 무수히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보다 더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 확장이 예술강사와 더 나아가 참여자들의 경험을 오히려 더 확장할 수 있고, 비대면이 가지는 제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측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의 기술적 대체가 아닌 문화예술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기술적 대응과 전환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학습자에게는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교육이 소통의 아쉬움, 교육의 위기보다는 편리한 접근성, 바쁜 현대사회에서 시간의 절약 등 열린 기회로서의 측면이 더 부각되기도 한다. 온라인 매체가 익숙한 세대나 계층일수록 온라인은 제약이기보다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접하고 선택의 기회가 확장되는 환경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제한적이고 아직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가진다. 특히 온라인 매체를 갖춘 정도, 기술활용 수준, 연령이나 처지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차원의 격차는 참여자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에게도 코로나 19 상황은 단체의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예술강사, 기획자, 교육 연계기관 관계자, 진흥원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업 파트너 등 다양한 협력자들과 함께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우선 멈춤의 상황이 던진 수많은 문제는 오롯이 개별 단체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대응 역량의 차이 등으로 협력자들과의 관계가 변하였고,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기획과 연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함에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었다. 올해 계획된 사업에 변화가 심해지면서 내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불안해하지만 온택트 환경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작 인프라 및 정보 공유체계,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획, 연구 역량 강화의 예산 지원 등 구체적 대응정책이 제시되길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설, 기관, 재단 등의 현장 관계자들도 코로나 19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기술활용 격차, 시설별 운영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교육 운영 차이, 온택트로 변화한 현장에 유연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행정절차의 경직성 등으로 문화예술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온택트 상황에서 예술강사나 운영단체를 시설에 매개하는 운영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온택트 환경에 대처하는 직무역량이 개발되는 기회를 가지면서 온라인으로 대체가 아닌 온라인에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소통과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2 |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방향

각 영역별 구체적 이슈와 필요한 지원은 개별 인터뷰 내용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전반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크게 세 축으로 정리하였다.

첫번째, 문화예술교육생태계가 연대하여 해결해가는 정책 기반 제공이다.

코로나 19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내에서도 여러 차원의 격차를 만들고 있다. 온택트 상황에 적응해가는 역량 차이로 고립, 배제, 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 각개 전투하듯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코로나 불루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도 예외가 없으며 예술적 감성에 기반을 둔 영역 특성상 어떤 면에서는 더 격해지는 부분도 있다. 그 때문에 각자의 불안감이 아니라 모두가 겪으며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 자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 속에서 존재 기반을 상실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극복의 과정이 다가올 미래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번째, 언택트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체계 구축이다.

언택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당장에 필요한 역량은 온라인 기술역량이다. 예술강사, 운영단체, 현장 관계자, 그리고 광범위하지만, 학습자 등 모두에게서 온라인 기술역량에서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기술역량 격차로 인해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다. 각 대상에 따라 필요한 기술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넘어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확장하는 역량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 사회변화와 맞물린 문화예술교육을 성찰하고 교육방법을 확장하는 전환적 역량이다. 그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전환할 수 있는 다각적 환경 마련이다.

코로나 19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서둘러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였지만 당장에 저작권, 제작 인프라, 정보공유 기반 등에서 어려움이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개별 예술강사와 개별 운영단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맞지 않는 경직된 행정 기반도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자나 기관과 시설 운영자들의 인식 차이도 존재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변화는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은 더디게 변하는 실정이라서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 전환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3 | 불안감을 넘어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 위기에서 희망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변화는 총체적일 것이라 예상되지만 아직 누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불안감은 나 또는 우리만의 감정은 아니며 그야말로 팬데믹 불안감이다. 올 한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이 겪은 불안함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존재적 위기나 방법의 변화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함께 모색하지 못하고 각자 해결해야 할 거 같은 연결의 단절로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불현듯 닥친 재난 상황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을 골고루 조망해주는 효과를 역으로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것들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불안감을 넘어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고 있다. 비록 불투명한 미래지만 함께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함께 대응해나간다면 위기를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학습자)에게 들었습니다.

위기보다 희망, 지금이야말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시기

윤동희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작가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집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다. SF소설이나 재난 영화 속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간다. 생각보다 길어졌으며 언제끝날지 모른다. ‘금방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대비해야 한다. 장르를 막론하고 소통과 정서적인 교감이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은 갑작스러운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다. 걱정과 우려 속에 시작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문제는 없었을까?

이 질문에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일 것이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크크키키 수피노프 나의 나의 마을에 놀러와요 (기획·운영 : 중부대학교)>에 참여한 신강우(오마초등학교 5학년)와 아버지, 손하음(고양초등학교 6학년)과 어머니, 김서윤(신일초등학교 6학년)과 어머니, 그리고 현재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규준 님과의 대화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은 어땠을까?

이제 막 수업 과정을 마친 어린이 참여자들 얼굴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 수업을 마친 소감을 묻자 그들이 느끼는 아쉬움에 온라인이라는 형식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았다. 수업을 준비한 강사와 연구진들의 노력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있었다.

“저는 항상 즐거웠고, 매주 할 때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게 보였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허전하고 서운했어요.(신강우)”

“중학교 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손하음)”

2 | 참여자들이 느낀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차이점은 무엇이였을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들이 말해주는 차이점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기도 했다. 특히 같은 프로그램에 2년째 참여하고 있는 김서윤 어린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형식 모두를 경험한 참여자이다. 서윤이의 이야기를 통해 온라인 수업의 편리한 접근성을 알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김서윤 어린이의 어머니와 다른 학부모님들, 그리고 직장인 이규준 님도 동의하는 부분이었다. 시간의 절약과 이동의 편리함, 교육의 접근성이 쉬워졌다는 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시간에 쫓기는 현대사회에 중요한 장점으로 보인다.

“저는 작년에 참가해서 이번이 2번째 참가하는 건데, 작년에는 오가는 이동시간과 소요되는 자
잘한 시간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 수업만 하고 끝나서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김서윤)”

“만들기 할 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깐 만들기를 하는 동안 수다
를 떨기보다는 오히려 만들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도 놓친 부분 있었을 때 다
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신강우)”

3 | 그렇다면 정말 아쉬움은 없었을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한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모둠 활동을 할 수 없는 점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없는 점을 크게 아쉬워했다. 선생님이 계신 대학교에 찾아가겠다는 하음이는 인원을 나눠서라도 가능한 선에서 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코로나 방역하려고, A와 B조로 나누었는데, 크크키키 프로그램에서도 반을 나누어서
소수의 인원으로 직접 만나서 했으면 좋겠어요.(손하음)”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예술쉽표 우드카빙반 기초과정>에 참여하는 직장인 이규준 님 역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수업 과정은 매주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이 미리 도착하고 강사들의 준비가 철저해 수업에 대한 힘든 점은 현재까지 느끼지 못했으나 함께 하는 참여자들에 대해 알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음이 아쉽다고 했다.

함께 하는 참여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은 온라인 수업을 지속해 나갈 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4 | 온라인 수업은 문화예술교육의 위기가 아닌 기회

문제가 아닌 희망이라는 메시지도 참여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신강우 어린이의 아버지는 온라인 수업은 계속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흥미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기술적인 것이 보완된다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김서윤 어린이의 어머니는 학교 수업보다 더 집중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정서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지금과 다른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힘은 어떤 지식보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손하음 어린이의 어머니는 항상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안타까웠는데, 문화예술교육이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하게 해주는 계기가 된 점을 고마워하며 활동적인 남자친구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희망했다. 신강우 어린이의 아버지 역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문제점이기보다는 희망적인 것을 많이 봤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공감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이 많이 나왔어요.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따로 만들어서 각자 소개해주는 정도의 소통이 다였던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만드는 활동이 줌(zoom)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 발달해서 자기가 만든 것을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서 파일로 보내고 각자의 것들이 합쳐져서 영상에서 그래픽으로 합쳐지고, 무궁무진하게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술적인 것들과 기반이 조성된다고 하면, 전혀 문제없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하게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더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신강우 어린이 아버지)”

“아이들이 자라면 저희 때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갈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경계도 허물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문화예술교육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될 수 있는 훈련과정이라 생각해요. (김서윤 어린이 어머니)”

“우리나라가 성장 위주의 사회로 도시의 모습이 아파트라 삭막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면 사회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아이의 세계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모습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 세대의 것들이고, 점차 세대가 바뀌고 다른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강우 어린이 아버지)”

직장인 이규준님은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꼭 집어 말했다.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을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 종사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신나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궁리하고 뛰어드는 것이다.

“직장인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삶에 활력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업무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행복한지 알수록 좀 더 그 방향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이규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의 참여를 망설이는 참여자들에게 직장인 이규준님의 말을 전한다. 우리의 걱정이 문화예술교육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시도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이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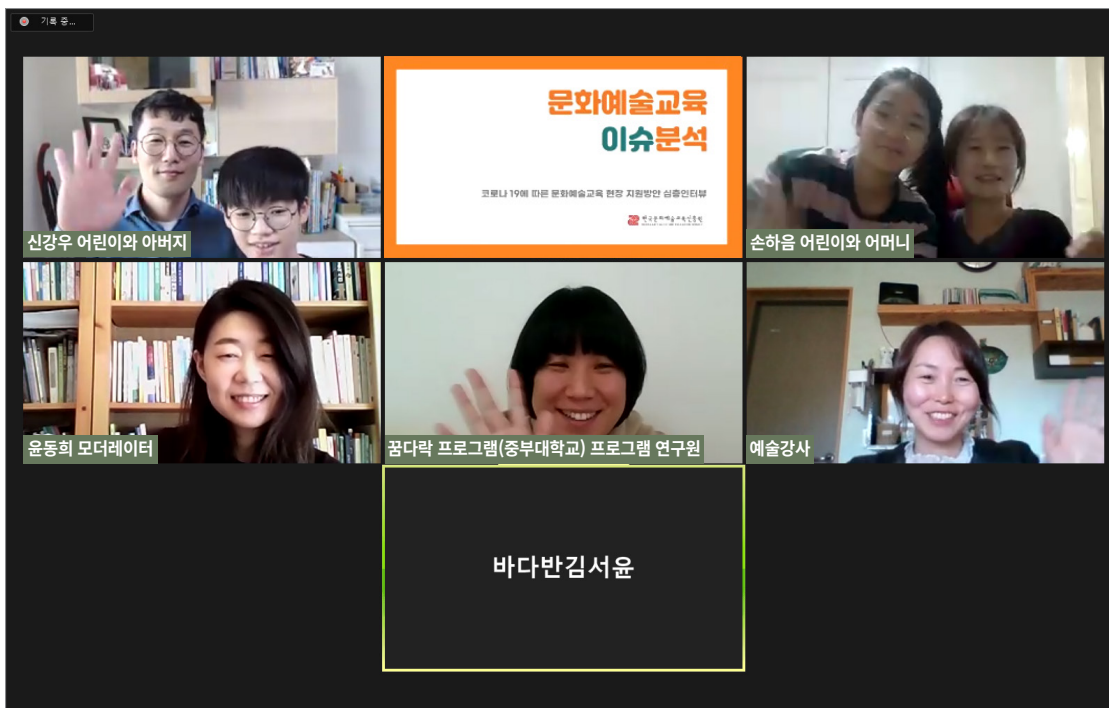
5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인터뷰 참여자 의견은 전체 참여자 의견을 대신하거나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인터뷰 참여자들은 지역적, 환경적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다년간 꿈다락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응축한 전문가들이 준비한 안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하지만 모든 문화예술교육이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번 문화예술교육 참여자(학습자)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술치유사업에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가족과 청소년 방과 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학생도 함께 섭외를 진행하였는데 참여자의 특성으로 인해 섭외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경우, 프로그램의 참여에서부터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교육 자체도 어려운 점이 많아 인터뷰 진행도 불가능했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듣는 과정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다.

또한, 지역과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 격차도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 노트북 등 개인이 갖춰야 할 기자재가 필수이며 아동인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줌(zoom) 연결을 도와주고, 비디오도 찍어서 편집해주어야 하는 등의 양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예를 들어 조손가정 등) 아동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서조차 교육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예상되는 문제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긍정적이고 좋은 면에 대해 파악하고 비대면 시대에도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은 것은 중요한 성과이나 어려운 현장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이 부분은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과 지원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소외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진] 온라인 인터뷰로 만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3 예술강사에게 들었습니다.

낯설음, 불안함, 안개를 헤치며 나아가는 문화예술교육현장에 필요한 네 가지

호중훈 | 학교 예술강사

새해가 시작되며 찾아온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낯선 재난 앞에 교육현장은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고 있다. 예술강사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참여자들과 만나 눈빛을 교환하고 호흡을 나눌 즐거운 새 학기 예술수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불현듯 찾아온 사회적 재난 앞에 문화예술교육은 그동안 움직였던 방식의 작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비대면 원격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방식이 작동했다. 더불어 예술강사들에게는 온라인 원격수업과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불안정한 교육 일정, 재난 지원의 경제적 사각지대라는 어려움이 찾아왔다. 최근 들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제한된 등교를 시작으로 교육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은 코로나 19와 불안하게 마주하고 있다. 마치 러시아 애니메이션 <안개 속의 고슴도치>¹⁾처럼 짙은 안개 속에서 낯선 길을 불안하게 더듬으며 나가는 작품 속 고슴도치를 떠오르게 한다.

안개가 언제 걷힐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채 앞으로 가야하는 현장은 그래서 낯설고 불안하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 그 본연의 목적을 향해 앞으로 나가려면 지금 현장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반드시 돌아보고 질문을 시작해 보아야 할 때이다.

낯설, 불안함, 안개를 헤치며 나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이번 인터뷰는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악 분야 박수연 강사, 연극 분야 구본정 강사, 무용 분야 박숙희 강사, 디자인 분야 박경식 강사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코로나 19에 대한 어려움을 돌아보는 과정에서부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경험한 의견을 나누며 문화예술교육 현장이 코로나 19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유리눌슈테인 감독이 컷아웃 기법으로 만든 1975년 러시아 애니메이션. 「곰을 만나러 가는 길」 숲속에서 짙은 안개를 만난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그렸다.

1 |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비대면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단계별 연수의 확대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이 대면교육과 함께 계속 확대되고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와 형태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겠다.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현장의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원격교육(실시간 쌍방향 수업,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등)의 역량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수준별, 단계별로 연수를 확대해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수는 크게 네 가지 형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예술강사들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역량을 높이는 연수, 둘째, 예술강사의 풍부한 교육 전문성이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자의 질 높은 예술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질문하는 연수, 셋째, 학습 동기 유발과 학습자와의 유기적인 상호방식, 피드백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비대면 온라인 문화예술 수업의 사례를 나누는 연수, 넷째,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²⁾을 포함한 다양한 수업방식을 문화예술교육에 적용해 풀어 보도록 하는 연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뉴노멀이 다가온 지금 이러한 연수 지원을 통해 현장이 새로운 교육의 기준을 고민하고 다양한 형태로 문화예술교육을 마주함으로써 그것을 낫설지 않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연수는 예술강사들이 자신의 교육을 돌아보고 코로나 19의 지속상황에 대비한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고 진지하게 질문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민되는 다양한 교육형태에 자신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담는 연습을 통해 교육현장에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선생님들조차 비대면(수업)을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예술강사는 더 그렇잖아요.
(박경식 강사)"

"코로나 19로 생긴 어려움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있어 컴퓨터를 잘 모르는 기술적 부분입니다. 또 연극은 즉흥성과 현장성이 중요한데 이것 온라인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구본정 강사)"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어떻게 콘텐츠를 아이들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투입된 질 좋은 온라인 콘텐츠는 많이 나와 있는데, 장비도 없는 내가 그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많았어요.(박숙희 강사)"

"(온라인 콘텐츠를) 이번에 만들면서 (느낀 것은) 어차피 시대가 그래서 공부해 해야겠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랑 어우러져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뭘가는 필요한 것 같아요.(박수연 강사)"

2)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학습 방법

2 | 연구학습공동체 지원을 통한 장르 형·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작 환경 마련

문화예술교육이 포스트 코로나에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나가려면 문화예술교육 본연의 힘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 본연의 힘이란, 교육의 참여자들이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상상을 호흡하고 자신의 일상과 삶을 끊임없이 연결하면서 의미 있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그것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소비될 때 가능하다.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개별 역량을 넘어 예술교육 종사자 간의 집단 역량이 발휘되는 협력을 통해서 더 역동적으로 생산되고 폭넓게 공유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장르 또는 서로 다른 장르 간 융복합 형태 등 다양하게 만들어진 연구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연구되고 개발되는데 필요한 환경과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전문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도록 해주고 지원해야 한다. 연구학습공동체 간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의 경험을 공유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플랫폼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연구학습공동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환경에서 앞서 이야기한 연수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기준과 본연의 힘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 프로그램으로 답하는 현장의 실천적인 노력과 결과를 담을 수 있다. 또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의 수업을 어떻게 할지 연구모임을 지원해 주면 예술강사들이 굉장한 역량을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분야도 있지만 다른 분야 연수에서 가장 많이 예술성을 받는 것 같아요. 연수받았던 것 중에 초기에는 콘텐츠가 목말랐다면 지금은 내가 가서 예술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연수를 통해서 내가 예술가로 느껴지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 다르더라고요. (박숙희 강사)”

“내년에 (지원사업형태의 다각화로) 1인 강사가 아닌 팀 파견이 있었는데, 팀 파견이 아닌 팀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잘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구성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너무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팀 구성이 되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온라인과 병행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10% 대면 수업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지내보면서 이걸 결국 아이디어 싸움 같아요. 이런 아이템, 콘텐츠 전문가 그룹이나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협력하도록)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많은 선생님이 코로나 이후 교육의 형태가 바뀌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일(온라인 수업)이 전에 하던 일이 아니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불안감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좁혀지지 않을까요?(박경식 강사)”

“저는 코로나 19로 재택근무를 하며 제 삶도 연극 수업도 변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를 겪는 시간. 변화하는 시점에서 예술교육도 어떤 방식으로의 변화까지 가능할까? 한계점을 놓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까지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고 실행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구본정 강사)”

3 | 대면·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수업의 실행 매뉴얼 및 기준 체계 마련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대면 문화예술교육이 작동을 멈춘 상황에서 현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다려야만 하는 불확실한 문화예술 수업이었다. 교육 일정이 계속 연기되다가 급기야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불확실해진 교육 일정과 변화된 교육형태에 따라 준비된 수업계획과 수업지도안은 다시 써야 했다. 현장의 예술강사들이 수업의 일정과 형태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계속 학교나 기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장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과 교육청 간 협력과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다.

현장의 문화예술교육 형태, 즉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코로나 19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및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면 학교와 강사 간, 기관과 강사 간 수업에 대한 소통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에서 오는 현장에서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강사들이 수업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상황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실행 매뉴얼 및 기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가 코로나 19로 수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포기해야 하는 거고, (수업을) 나오지 말라고 하니 일정 빼놨는데 못 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니 수업이 밀리고 국가적 재난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약이 없는 거죠. 상황을 대처할 때 운영기관에서 저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학교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구본정 강사)”

4 | 예술강사들의 심리적·경제적 방역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지쳐있는 예술강사들을 위한 심리적, 경제적 방역은 무엇인가? 마음의 방역과 더불어 경제적 방역을 돕는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우선은 예술강사를 위한 심리적 방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코로나 블루(BLUE)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멈춘 일상 속에서 마음의 불안과 우울감, 고립감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예술 강사들도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그리고 고립감을 느낀다는 점을 주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고 꼭 필요한 것, 바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이 코로나 19를 혼자서 아닌 같이 이겨나가도록,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안아주는 제도적 노력이 그것이다. 그것이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하다.

또한, 심리적 방역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경제적 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도 중요하다. 예술 활동과 문화 예술교육이 위축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강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강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재난의 지속상황에도 어떤 경제적 도움도 작용하지 않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던져진 외로움일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등 마음의 방역과 더불어 경제적 방역을 돕는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학기에 수업을 아예 못했거든요. 못 했죠. 8월 말부터 조금 했는데 확실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꼈어요.(구본정 강사)”

“재난지원을 받으려는데 조건에 있어서 이것도 조금 걸리고, 저것도 조금 걸리고 해서 받지 못했어요. 완벽한 사각지대, 슬픈 사각지대……. 저 같은 강사들 많을 것 같아요.(박경식 강사)”

“학교에 수업이 제때 시작을 안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같이 모여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박수연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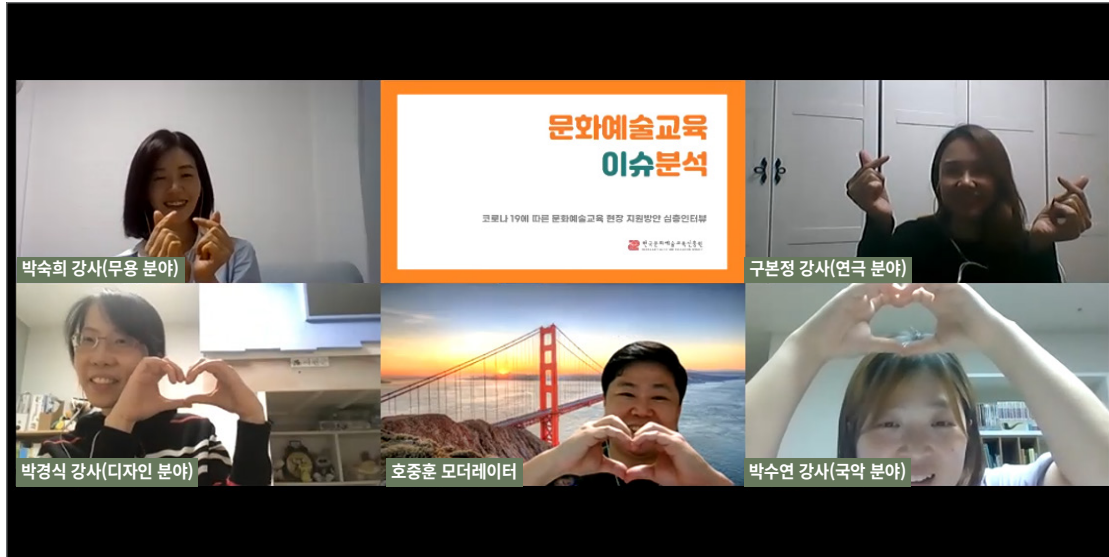
5 | 코로나 19를 이기는 진정한 백신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낮شم, 불안함, 안개를 헤치며 나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해 보고 이야기해보았다. 현장의 많은 강사들은 지금의 상황을 단지 어려움이라고만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참여자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문화예술교육이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도전과 노력의 과정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주한 위기를 어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꾸는 질문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 있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향한 지원방안은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씩 디딤돌을 놓고 다가가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삶에서 예술이 없으면 딱딱하고 건조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삶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의 문화예술관련 동영상들 본 적이 있는데) 각박한 시기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밖에 없구나, 해야겠구나, 뚫어야겠구나, 더 활성화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돌아보고 연구하는 면에서) 제가 조금 더 발전했어요.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았으나 소통도 어려웠고,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 기회가 우리에게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박숙희 강사)”

“저에게만 힘들었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면서 저만의 노트를 마련했어요.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하는 노트예요.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황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박경식 강사)”

일상과 삶이 새로운 의미로 호흡하고 따뜻한 공감과 소통으로 단절된 세상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지금도 교육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많은 예술강사들과 함께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진정한 백신으로 계속 의미 있게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사진] 온라인 인터뷰로 만난 예술강사

4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에게 들었습니다.

생존적 위협 속 변화의 기로에 선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추미경 | (사)문화다움 대표

1 | 시작하며

코로나 19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며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전 방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핵심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는 코로나 19 상황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위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는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와 방법론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단체마다 특성과 규모,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이 다르므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양상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이 위기든 기회든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에게는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가는 인식과 역량에서의 확장성도 드러나고 있다. 반면 비대면 교육방법에 따른 다양한 층위의 격차, 온라인 소통에서의 건조함과 폭력적 측면 등의 문제점들이 구체화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정책적 대응의 범위와 속도가 현장의 온도와 차이가 있어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의 불안정성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단체는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플레이 김상규 대표, 한예술치료교육연구소 오선미 소장,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중부대학교 현혜연 교수이다. 전국 수많은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들의 입장이 각기 다양하겠지만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세 단체의 의견에 기초한 이슈를 정리하였다.

2 | 코로나 19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를 성찰하게 한다.

갑작스럽게 수업을 못 하게 되어 모든 활동이 멈추어버리고, 비대면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을 왜 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견지해야 하는 것인지, 어려움에 처한 예술강사들과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코로나 19는 잠시의 위기가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찰의 계기는 단지 멈춤에서 그치지 않고 변화를 위한 돌아봄의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상황을 통해 저희가 생각한 것은 언택트라는 것은 언어적 전달이 아닌 연결의 키워드라 생각돼요. 단순한 접촉이 아닌 공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접촉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오선미 소장)”

“온라인 교육형태의 폭력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학습자에게 폭력적인 교육형태입니다. 몇 초의 여백 시간도 없이 노출되어 감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프로그램이라는 건 참여하다가 망상도 하게 되고 여유의 시간이 있는데 온라인 실시간은 이런 잡시의 여유도 없어 중압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김상규 대표)”

3 | 비대면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작동된다.

인터뷰에 참여한 세 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영역과 방법이 다르기때문에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모두 위기의 상황을 겪었다. 상반기 활동이 중단되면서 단체에 연결된 다양한 협력자들과의 관계 설정이 어려워지고, 현장성이 강한 단체일수록 경제적 타격도 컸다. 한편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는 밀린 수업 일정이 한꺼번에 몰림으로 인해 일의 부담감이 증폭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장에서의 소통과 정서감이 중요한 단체는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온라인 수업방식 적응역량에 따라 예술강사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변화를 맞이했다.

그러나 비대면 전환과정에서 각 단체는 온라인 기반 콘텐츠 생산 및 실시간 교육 운영 등에서 역량이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 예술치유 영역에서는 작품으로 소통하던 방식에서 매체가 결합되면서 단체에게는 사전 워크숍이나 타 영역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이 확장되는 긍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고, 공간이나 장소적 제약은 오히려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대면으로 수업할 때 보다 접근성이나 이동성 등의 이유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더욱 열린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저희는 올해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했었기 때문에 저희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예술강사는 모두 멈춰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죠.(김상규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만 있었던 때보다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이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 어눌해서 뭘 하는 게 싫은 사람들,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도 지금까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은 거의 들어오기 어려웠으나 새로운 참여자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현혜연 교수)”

4 | 학습자, 강사, 단체 모두 언택트, 온라인 관련 교육 격차가 만들어지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및 체험 키트(Kit)를 활용한 수업, 온라인 실시간 수업, 소수 학습자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의 현장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수업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차원의 격차들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반 수업은 참여자들의 교육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온라인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참여 자체에서부터 참여방식, 디지털 문해력 등 다양한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강사들이 온라인 기반 역량 격차도 다양하게 드러났다. 고령이거나 온라인 기반 수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아예 이 상황이 종결되기를 기다리는 강사들도 있다.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의 경우, 언택트 및 온라인 지원사업에 대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터넷 활용,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는 언택트 상황이 교육 격차를 확대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해성의 원인이 되겠다 생각합니다.(오선미 소장)”

“비대면 관련 광역재단 사업이 많이 생겼지만 여러 개 받을 수 있어 유리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도전해서 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고, 모두 지원사업 베이스다 보니 지원서 쓰고 도전하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택트,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를 위해서 기획서도 써야 하고, 심사과정을 거쳐 경쟁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어려운 거죠.
(현혜연 교수)”

5 |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의 발생, 보완적 장치가 요구된다.

온라인 교육을 비롯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다양해서 현장에서 는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학교 내에서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 온라인 콘텐츠임에도 학교에 와 있을 것을 요구하여 강사 개인 또는 단체 차원에서 갈등적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편, 강사들 간에도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 충분한 사전 논의나 진행 과정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과 리뷰의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을 때 우리 단체와 만나게 되는 학교에 파견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측에서 온라인 콘텐츠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르지 않아서, 온라인 콘텐츠는 제공하고 해당일에 학교에 와서 상주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김상규 대표)”

“강사들 사이에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했던 실천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규명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지만, 강사들은 모두 모여서 하면서, 그 과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어요.(현혜연 교수)”

6 | 기획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등 단체역량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상황은 이전과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고, 다른 장르(또는 영역)나 매체와의 협력이 수반된다. 인터뷰에 참여한 세 단체가 공통으로 제안한 것은 기획비와 연구비가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타 장르 및 매체와의 협업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이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코로나 19 상황으로 새로운 전환의 기로에 선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이를 기획하고 연구하고 실험하는 준비과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또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기획 및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과정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단체의 기획자나 예술강사 모두 비대면 수업환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준비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단지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비대면 교육환경을 복합적으로 해석하고, 온라인 기반 문화예술교육 메커니즘에 맞게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 단체에게 기획비나 연구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사한테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만 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획비, 연구비 현실화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야 뭘 좀 공부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기죠.(현혜연 교수)”

“이번에 잠시잠깐 대면이 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이 정립되고, 종사자 교육이 진행되고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지 현장의 계신 분들 접근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오선미 소장)”

7 | 제작 인프라 공유 플랫폼 등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온라인 기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소통을 위한 현장의 구체적 수요들이 등장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개별 단체가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영상이나 콘텐츠 저작권 이슈, 제작의 전문성, 소통방식에서의 편차 등이 드러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앞으로는 복합매체에 대한 지원, 온라인 자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녹화제작 플랫폼 등 제작 인프라 기반 공유 플랫폼 구축과 활용에 대한 지원구조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폰트, 음악 활용 등이 제한적이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김상규 대표)”

“완성도 있는 콘텐츠로 발전하려면 녹화제작 플랫폼이 제공되어 기관이나 강사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콘텐츠의 경쟁력도 있으면서 문화예술 고유성 있는 프로그램 확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오선미 소장)”

8 | 문화예술교육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단체가 생존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

단체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상반기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는 강사비를 지급해야하는 데 교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는 일정이 몰려 주말도 없이 일정을 소화하느라 급급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 올해의 상황이 내년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불안한 가운데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온택트 중심으로만 사업이 추진되면서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단체, 강사들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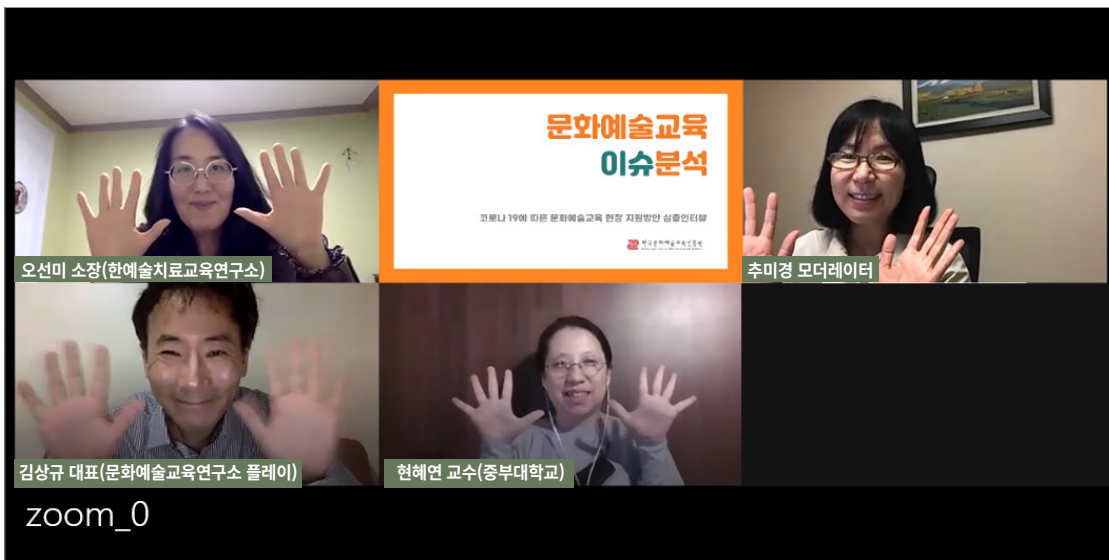
이렇듯 코로나 19 재난 상황은 문화예술교육 강사와 단체 모두에게 생존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책에서 최대한 대응하고자 하였지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갑자기 교육이 중단되었다가 새로운 접근방법을 급히 모색하는 현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올 한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단체를 비롯한 문화예술교육생태계에 속한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반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단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제 주변의 팀들을 보면 연령이 높아서 온라인 환경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거나 아직도 대면 교육을 기다리는 팀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단체의 역량으로 평가하지 말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공유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김상규 대표)”

9 | 마무리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든 생각은 코로나 19 재난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공감하고, 누군가가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변화를 모색하면서 전환해가는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19는 단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상당 부분 전환해야 하는 총체적 사회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총체적 사회변화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고유한 가치를 시대변화에 맞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전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비 지원, 단체의 기획자와 협력 예술가, 예술교육 강사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연수 과정 지원, 전환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된다.



[사진] 온라인 인터뷰로 만난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5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이분법을 넘어 사람과 소통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발견하기

김혁진 |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연구위원

문화예술교육 또한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사람인 예술가, 배우는 사람이 학습자와 교육경험으로서의 예술체험으로 이루어진다. 교수와 학습과정은 빈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업 환경을 필요로 하며 공간 자체가 또 하나의 교육적 경험으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더하여 예술교육 환경이 예술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제 3자가 운영하는 공간이라면 공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역할과 참여 수준 또한 교육의 질과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현장 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의 공모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자의 신청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때 이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예술교육이 불가피하게 진행되면서 시설 현장에서 학습자를 조직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관리하는 운영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대면 교육 상황에서는 예술가의 역량이나 학습자들의 참여 태도가 중요했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설의 관계자들은 관찰자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예술가가 현장을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 특히 영상 콘텐츠나 재료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직접 실습을 해야 하는 방식인 경우, 현장의 운영자 역할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이 앞으로도 지속하고 코로나 19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한 블렌디드형 수업이 확산될 경우 이 부분은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진행된 인터뷰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중에서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에 참여를 신청하고 운영하는 아동보육시설인 강릉보육원의 이희영 실무자, 전국의 노인복지관과 예술강사를 연결하고 중간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조현호 팀장,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을 총괄하는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김영경 대리와 함께 진행하였다. 세대 측면에서는 아동과 노인세대에 특징이 있었고, 운영체제로는 생활 시설인 아동보육시설과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었다. 여기에 지역의 다양한 시설이나 예술가단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바라본 지역 예술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인터뷰 진행은 미리 준비된 질문 내용을 토대로 제시된 순서에 따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속에서 개인의 경험과 소속 기관에서의 상황이 겹쳐지기도 하고 서로 질문도 하면서 다양한 문제나 생각을 공유하였다. 앞으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정착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현안과 방향을 대화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 세대, 지역, 개인 여건에 따른 기술 활용 수준의 격차 문제

노인세대의 경우 기술 활용 격차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 경우에도 수도권 거주 노인과 지방 거주 노인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 학습자 개인이나 시설의 장비 여건이 미비할 때도 문제이지만 시설 운영자의 기술 역량도 영향을 미친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다고 보면 집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아요. 어르신들의 집을 보면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제일 열악한 상황이에요. 인터넷이 없는 가정도 계시고, 스마트폰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이게 교육단계부터 같이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교육단계를 생략한 채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해버리니. 이용법도 모르겠는데 환경도 되지 않고 두 가지 난제가 같이 있다 보니 이게 뭘까? 하는 고민과 걱정, 우려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수도권은 그나마 장비 환경이 괜찮은 곳들이 있어서 방법적인 것을 보완해서 진행했는데, 농어촌이나 이런 쪽은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조현호 팀장)”

2 | 시설 운영기준에 따른 접근성과 방문 가능성에 따른 차이

생활시설인 보육원 시설의 경우, 외부인 출입 자체가 금지될 때 시설 내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교육경험은 그만큼 줄어든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집합 자체가 제한되면 노인들이 시설을 방문할 수 없어 교육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지역의 시설이나 기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지만, 시설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 비대면 사업 방법도 편차가 발생한다.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시설 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다 보니 2단계만 들어가면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휴관 상태로 들어가서 대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비대면을 조금 열어두죠.(조현호 팀장)”

“예술강사가 이야기하시길 저희(아동보육시설)는 아이들이 쉼터에서 생활하니까 콘텐츠를 보내주면 활동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진행을 하든지요.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은 아이들이 아예 오지 않으니까 콘텐츠를 주더라도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이희영 실무자)”

3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직무능력 개발의 계기와 기회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반대로 온라인 매체와 미디어 기술을 다루어야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기술 역량이 달라지겠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요구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IT에 관련된 업무나 기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관련 업무나 관심사들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들이 업무에 녹여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세대 차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리자로서 계신 분들은 이해시켜 드리고 공감대를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반면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뒤쳐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배우는 것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조현호 팀장)”

4 | 문화예술교육 운영시설의 담당자 역량과 시설환경의 중요성

온라인 실시간 교육, 영상 콘텐츠 전달 방식, 재료 전달을 통한 실습 방식 등 예술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비대면 교육상황 속에서 시설 운영자, 담당 실무자의 태도나 진행능력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시설의 미디어 장비 환경이나 콘텐츠 활용 기반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될 때 진행하는 (운영시설) 선생님의 역량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예술강사가 의도하는 대로 저희도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육 장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할 때는 예술강사가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피드백을 주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전에 제작한 수업)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저희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강사님께 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서 장비가 잘 갖추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이희영 실무자)”

5 | 문화예술교육에서 소통과 대화의 중요성 재발견

온라인 교육이 성공하려면 역으로 예술가와 참여자 간의 소통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발견한 것은 그동안 대면 교육에서 참가자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람의 말은 정보만 담긴 게 아니라 뉘앙스에 따라 의미도 달라지고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문화예술 관련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누가 시키셔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영상으로 어떤 정보나 지식 전달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교감이나 혹은 다른 감각들, 언어 말고 다른 감각들은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은 원시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감각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었어요.(김영경 대리)”

6 | 온라인 기반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결합에 대한 요구

온라인 교육만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고 오히려 실제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비대면 교육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소규모 대면 교육의 가능성 모색이 요구된다.

“저는 여전히 사람들 간의 대면 활동이 있을 것이고 사라질 수 없다. 페스트는 300년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아예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안전한 대면 활동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요.”

(보육원의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육원에 찾아가는 선생님들이 좀 더 각별히 주기적인 검사도 받고 관리를 잘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요.(김영경 대리)”

7 | 다양한 비대면 방식 교육방법의 장단점 분석과 활용

온라인 실시간 교육이라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며 영상콘텐츠 제작 방식이 수동적 시청의 문제는 있지만 반복이 가능한 콘텐츠로 장점도 있다. 온라인 매체도 다양한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몸 움직이는 건 어떻게 온라인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하는 중이고요. 토론회, 포럼, 강의더라도 대화형으로 하는 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일부분 장점도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는 건 효과적인 측면이 한 축에 있고, 딜레이가 있지만, 대화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한편으로 온라인의 장점이 딱 그 시간에 있지 않아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략) 온라인을 통해 공간 제약과 시간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시도하지 못했던 것은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김영경 대리)”

8 | 오프라인의 온라인 전환이 아닌 온라인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오프라인에서의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방향만 생각했으나, 온라인은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에 특화된 매체나 콘텐츠, 교육활동 개발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오프라인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정도의 고민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의) 온라인 복제판이 아니라 온라인 특성에 맞는 장점을 잘 살린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과 해법, 프로세스 그런 걸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에서) 실시간 참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개입할 수 있게 하고, 오시는 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요청하고요.(김영경 대리)”

9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유통의 플랫폼과 제작 지원의 필요성 제기

저작물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활용과 제작을 지원할 공동의 기반이 필요하다.

“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과 관련해서 지금 저는 유튜브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시키지 않았는데 올리는 거는 자기만족도 있지만, 나중에는 개인 활동에 대한 대가로 돌아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는 진흥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차후에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많으면 콘텐츠 만든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시스템도 어떨까요?(김영경 대리)”

10 |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한 운영의 유연성 부족

참석자 사진 촬영을 통한 회의 증빙자료와 같이 오프라인 방식의 업무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기반 교육 활동은 진행이 어렵다. 통제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에 적합한 유연한 행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하반기에 비대면 수업을 하는 곳도 있었는데 행정처리 때문에 강사님이 기관으로 와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강사비 정산할 때 교통비를 지급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행정이 현장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평상시처럼 돌아갔다면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은 못 따라가는 상황이어서 이런 과제들이 매우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현장 베이스로 행정에 대한 지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운영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조현호 팀장)”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현안과 방안들이 있지만, 실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설 현장 관계자로서는 정보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정보나 실제 활용 능력도 중요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수·학습 방법도 필요하고 비대면 교육의 개념이나 전략에 대한 능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필요로 하거나 별도의 예산 지원과 현장 담당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요소들이 대부분이다.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사례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매우 좋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사례는 사실 일선 현장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사례일 뿐 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설에서의 사례들은 본인이나 소속된 시설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동질감도 생길 수 있다. 더 나아가 비슷한 조건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은 동료들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계기가 된다.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단기간 전략은 사례의 공유와 활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성을 높여줄 것이다.



[사진] 온라인 인터뷰로 만난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

인터뷰(FGI)에 참여해주신 분들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모더레이터 윤동희

김서윤 | 신일초등학교 6학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참여

손하음 | 고양초등학교 6학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참여

신강우 | 오마초등학교 5학년,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참여

이규준 |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참여

예술강사

모더레이터 호중훈

구본정 | 예술강사, 연극 분야

박경식 | 예술강사, 디자인 분야

박수연 | 예술강사, 국악 분야

박숙희 | 예술강사, 무용 분야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모더레이터 추미경

김상규 |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플레이 대표

오선미 | 한예술치료교육연구소 소장

현혜연 | 중부대학교 사진학과 교수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

모더레이터 김혁진

김영경 |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리

이희영 | 강릉보육원

조현호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팀장

|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인터뷰 기록

일 시 2020. 10. 24.(토) 14:00

장 소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참 석 자

- 모더레이터 : 윤동희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작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크크키키 스피노프 나의 마을에 놀러와요' 프로그램 참여아동과 학부모 : 신강우(오마초 5학년)와 아버지, 손하음(고양초 6학년)과 어머니, 김서윤(신일초 6학년)과 어머니
- '크크키키 스피노프 나의 마을에 놀러와요(운영단체 중부대학교)' 프로그램 연구 및 강사진

윤동희

친구들, 오늘 '크크키키 스피노프 나의 마을에 놀러와요'에 참여한 친구들과 같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해보니 어떠했고, 이전과 어떻게 달랐는지, 앞으로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수업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수업을 끝낸 소감 이야기해볼까요?

신강우

저는 항상 즐거웠고, 한주 한주 할 때마다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그게 보였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허전하고 서운했어요.

손하음

창작하는 것도 재밌었고, 내년에 중학생 반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서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이 새롭고 창의적이고 학교 수업과 관련 있는 것 같았어요.

윤동희

끝내고 난 지금 아쉬운 마음들을 이야기 해주었는데,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듣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프로그램을 소개해준다고 생각하고, 크크키키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김서윤

크크키키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마을의 주제에 관하여 여러 마을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고 발문도의 견을 나누어보는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신강우

제일 좋게 느꼈던 점은 한주 한주 프로그램이 잘 짜여졌던 것 같아요.

윤동희

선생님과 만나서 할 때랑 온라인으로만 할 때 어떤 점이 달랐어요?

신강우

만들기 같은 거 하는 시간 동안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만들기를 하는 동안 수다를 떨기보다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도 놓친 부분 있었을 때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손하음

온라인은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자유롭게 이야기는 못 하지만, 그래도 자주 해서 재밌었는데, 직접 만나야 재밌을 것 같아요.

김서윤

저는 작년에 참가해서 이번이 2번째 참가하는 건데, 작년에는 크크키키의 광장의 주제이고 이번에는 마을이 주제예요. 작년에는 오가는 이동 시간이 있었고 소요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니 수업만 하고 끝나서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윤동희

온라인으로만 수업했을 때 아쉬웠던 점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신강우

같이 모여서 하면 모둠 활동을 하잖아요, 같이 만나서 하지 않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허전한 점이 있었어요.

윤동희

강우는 모둠 수업하는 친구들과 교감이 없었다는 점 아쉽다고 해주었네요.

손하음

온라인 줌(zoom)으로 하게 되니 친한 친구들과 반이 나뉘져서 아쉬웠어요.

윤동희

바다반, 태양반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네요.

김서윤

질문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윤동희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왜일까요?

김서윤

만나서 하면 다른 친구들의 의견처럼 모둠 활동도 하고 다 진행을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니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자세히 못 말할 수도 있고,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데, 온라인으로 하니 끝나고 화면을 종료하니 다시 들어가서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윤동희

맞아요. 처음 물어봤을 때 생각이 나지 않고 나중에 생각나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쉬울 수 있네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들어 보고 하니 문화예술교육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것 걱정이 많았었는데, 우리 친구들 코로나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수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염려가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하나요?

윤동희

수업을 고르는 기준은 어떤 것이예요?

김서윤

저는 작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부모님이 먼저 권하셔요. 한번 내용을 보니 흥미가 생기기도 했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아파트에 같이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해주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재밌을 것 같고, 여러 사람이 많이 참여해서 좋을 것 같아서 3년째 참여하고 있어요.

신강우

부모님께 추천을 먼저 받았는데, 새롭고 배우지 못한 처음 보는 주제니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윤동희

우리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한 거예요? 지난 주에 끝나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크크키키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 이야기해볼까요?

손하음

온라인으로는 마을 만들기가 제일 재밌었고, 직접 다니는 것은 축제가 제일 재밌었어요.

윤동희

하음이는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손하음

저는 고산지대를 선택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었어요.

신강우

만들기를 하다가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고 새로운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윤동희

의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의견이 있었어요?

신강우

선생님이 다른 친구의 마을을 보고 내주신 의견인데, 그 친구가 선택한 것이 고산지대를 선택했는데, 집과 집을 오가는 다리를 설치했다는 의견이 흥미로웠어요.

김서운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만들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만든 것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게 좋았어요.

윤동희

온라인 수업으로 할 때 어떤 점을 해주셨구나, 요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나요? 이런 점이 아쉬웠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었는지?

신강우

만약에 기술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4D로 수업을 해본다면 실제로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동희

그러네요. 뭔가 만들기를 하는 과정이 있으면 강우 말대로 우리가 빨리 발전해야겠네요.

손하음

선생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서 중부대가 가까워서 찾아갈 수 있긴 한데, 시간이 안 나서 아쉬웠어요.

윤동희

하음이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컸나 봐요.

김서운

아쉬운 점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같이 뭔가를 주거나 건네거나 받거나 하지 못해 아쉬웠어요.

윤동희

정말 아쉽네요. 서윤이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 뭔가를 나눌 수 없다는 게 온라인 수업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서윤이 덕분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에서 나눌 수 없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때 친구들 의견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나눌 수 없다는 서윤이 친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손하음

선생님들이 대학에 계시는 시간을 공유해서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윤동희

친구들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상황에서 달라진 점이 크게 있나요?

김서운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신강우

아무래도 마스크 쓰는 등 개인 방역을 지키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하음

코로나 없었을 때에는 좋은 점이 놀러 다닐 수 있고, 코로나 생긴 뒤에는 그래도 겨울이니까 추운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동희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무엇이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볼까요?

강우

어딜 좀 가고 싶어요. 여행이요.

윤동희

여행을 못 간 지 오래되었죠?

신강우

네, 한참 되었어요.

손하음

코로나 끝나면 친구들이랑 마트 같은데 놀러 가고 싶어요.

김서운

저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미국 뉴욕에 가고 싶어요.

윤동희

그럼 우리 다시 친구들이 참여한 꿈다락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또래 친구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라는 아이디어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기획자라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볼까요?

친구들이 참여하면서 재밌었고,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들이 불편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나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을까 궁금하기도 함. 그만큼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준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어땠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한가지씩 내볼까요?

김서운

지금은 지속 가능한 것에 공부를 해보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의 지구온난화에 대해 수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하음

학교에서 코로나 방역하려고, A와 B조로 나누었는데, 크크키기도 반을 나누어서 소수의 인원으로 직접 만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신강우

쓰레기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이번에도 살짝 배우긴 했는데, 살짝 하니 아쉬기도 했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활용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배우고 싶어요.

윤동희

하음이는 인원을 나누어서 가끔씩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모두

네

윤동희

선생님들 직접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손하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코로나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 캐묻고 싶어요.

신강우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 했는지 궁금해요.

김서운

간단한 안부도 묻고 다른 이야기도 하고,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 할 것인지 여쭙보고 싶어요.

윤동희

같은 반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만났던 거죠? 화면으로만 만났던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하음이는 바람반 친구들을 만나면 뭘 하고 싶어요?

손하음

먹을 것도 사 먹고, 게임 하고 싶어요

신강우

따로따로 만들었던 마을을 다 같이 만들어보고 싶어요.

김서운

저는 큰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같이 그린다거나 생각했던 마음을 같이 그려본다거나 하고 싶어요.

윤동희

오늘 서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잖아요. 이 시간이 많이 어색해요?

모두

그렇진 않아요.

윤동희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했을 때 불편한 점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거죠?

모두

네

윤동희

만약에 온·오프라인이 모두 열린다면?

모두

오프라인이요

윤동희

역시 우리는 만남이 필요하죠. 올해 진행해주신 꿈다락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김서윤

지금까지 수업해주신 것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동생을 보내겠습니다.

손하음

안될 것 같지만 중학교 3학년 반까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강우

다음 해에도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고, 다음번에는 꼭 같이 만나서 수업해요 라고 전하고 싶네요.

윤동희

서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서로에게 궁금한 점들 없나요? 바다 반이나 태양반 친구들에게 궁금한점으 무엇일까요?

손하음

몇 학년인지 궁금해요.

신강우

5학년이요

김서윤

6학년이요

김서윤

하음이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하음이 너 혹시 작년에 여기 참가했었어?

손하음

응

윤동희

하음이는 서윤이 기억나요?

손하음

나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목소리는 기억나요.

윤동희

강우도 누나들에게 물어봐도 되고, 다른 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돼요

신강우

누나들 6학년이니까 어느 중학교 갈지도 궁금하고, 김서윤 누나의 얼굴(카메라 활성화 안 되어)이 궁금해요.

윤동희

꿈다락을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꿈다락에 참여하라고 추천하고 싶은 말은?

신강우

처음에는 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아니까 일단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김서윤

이 프로그램은 보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게 재밌고,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기억도 많이 나고

손하음

만약에 내년에도 하면, 여자친구들과만 들을 거예요.

윤동희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은 수업을 문화예술 수업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문화예술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김서윤

저는 창작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니까.

신강우

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주제도 다양할 뿐 아니라, 같은 주제라고 언제 어떤 나이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손하음

문화예술이 상상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윤동희

그러면 문화예술이 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문화예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신강우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다른 생각도 떠오르는 것 같아서 다른 것을 발명해 내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김서윤

이런 문제들은 학교에서는 잘은 알려지지 않는데, 나중에 사회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손하음

인생에서 재미를 느껴야 하니, 제가 미술을 제일 좋아하는데 미술이 있으면 인생이 좋은 것 같아요.

윤동희

우리 친구들 모두 철학자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 문화예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가능할까 하며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수업을 들은 선배들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김서윤

온라인으로 해도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보다 장점이 많고, 어쩌면 단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좋을 수 있어. 한번 꼭 해봐

손하음

크크크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기회가 한 번뿐 이니까 꼭 신청했으면 좋겠어.

신강우

온라인에 대한 것은 오프라인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려는 것에 따라 더 잘 얻을 수 있고, 더 못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윤동희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줘서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이 해준 이야기를 잘 담아서 프로그램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희

이번에는 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모님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친구들이 꿈다락 참여하는 것을 지켜보시며 느꼈던 점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강우 아버지

문화예술교육이다 보니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들은 온라인으로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문화예술교육은 체험해보는 것이라 이게 과연 온라인으로 잘 될까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1차시, 2차시 박스 언박싱 하면서 진행하시는데, 너무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마지막에 강우가 마을만들기로 큰 결과를 만드는 것 보니까 준비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문화체험 수업도 온라인이 가능하겠다 느낀 것 같아요.

손하음 어머니

지금 크크키키 프로그램을 세 번째 참여하는 건데, 그 전에도 너무 좋아서 기대를 하고 신청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 신경을 쓰는데, 토요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 온라인 수업에 적응한 뒤, 크크키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적응하기가 편했고,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월~금까지 수업을 하며 쌓였던 스트레스가 토요일 문화예술 수업을 통해 해소도 되어 좋았습니다.

김서윤 어머니

서윤이도 올해가 두 번째 참여입니다. (어머니인)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중부대에서 하는 수업을 참여했어요. 그때 좋았던 기억이 나서 서윤이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서 작년부터 신청했고, 교과목 이외의 주제

를 다루고 있으니 교과를 통합한다고 볼 수도 있고, 교과목을 벗어난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 내용에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는데, 아이들 결과물 보니 엉뚱하기도 하지만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주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할 때에는 현장에서는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 없었으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이번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결과물 보거나 과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서윤이가 관심 있었던 에너지, 환경, 공정무역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윤동희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일상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나누어볼까요?

신강우 아버지

가장 큰 것은 집에만 있는 것이예요. 학교생활도 온라인으로 만나긴 하지만 반 친구들 전체를 모두 만난 것은 이번 주 월요일인 것 같아요. 남자 친구이니 만나서 부대끼고 놀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한해이고, 친구들끼리 만나고 소통하는 그 자체가 교육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게 큰 변화입니다.

손하음 어머니

아이들이 친구들 못 만나는 것은 갑작스럽긴 한데, 공부나 취미생활은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고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하음이는 스스로 놀이하는 것을 좋아해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래 있었지만, 오래 있으면서 깊게 놀이할 수 있는 것이 좋았고, 학교 가서 친구 만나니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윤 어머니

코로나 이후로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본다면, 어려운 점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자기 주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여져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모든 것을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점이 많은 것 같고, 스스로 하거나 부모의 참여로 해결해야 하는 점이 많은 것 같고 학습 공백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 보자면 아빠와 엄마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자의 반 타의 반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함께 해야 하는 활동이 많아지는 점인 것 같습니다.

윤동희

서윤이는 아까 동생을 보낸다고 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김서윤 어머니

동생은 4학년인데, 누나가 하면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고 있어요.

윤동희

4학년 남자 친구는 코로나를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지? 여자친구들과 다른 점 있나요?

김서윤 어머니

온라인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강해지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있고, 누나랑 다르게 수업이 끝나면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는 빈도가 있고, 그것에 대해 담임선생님과 이야기해보니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한 친구였는데, 바깥 활동이 자제되다 보니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윤동희

문화예술 프로그램 보내주신 부모님들 남다르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강우 아버지

제가 많이 신경 써 준 것은 아니고, 엄마가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많이 찾아보고 해서 이런 것 참여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손하음 어머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친구 엄마랑 한번 해볼까 하고 기대 없이 신청했는데 첫해에 너무 좋아서, 하음도 너무 좋아하고, 올해도 온라인이어서 많이 기대는 안했는데, 동생들도 하음이가 만든 것을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같이 놀이처럼 하고 신기해하고 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크크키키 선생님들 만나러 중부대에 놀러 가면 안되냐고, 인사도 하고 싶고 놀고 싶다고 친구랑 같이 간다고 해서 나중에 그러라고 했어요.

윤동희

그런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뿌듯하실 것 같아요.

손하음 어머니

네, 많이 뿌듯하고요, 중학생 때도 참여하고 싶어요.

김서운 어머니

아이들이 자라면 저희 때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갈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경계도 허물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문화예술교육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될 수 있는 훈련과정이라 생각되어서, 올해 온라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얻어갈 것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동희

서운이 어머니께서 문화예술교육이 미래에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할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문화예술교육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지점을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강우 아버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성장 위주의 사회로 도시의 모습이 아파트라 삭막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사회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아이의 세계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모습이 바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 세대의 것들이고, 점차 세대가 바뀌고 다른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교육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손하음 어머니

크크키키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때는 막연했는데,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주셔서 좋았고,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감성적, 다중지능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살아갈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프로그램이 멘토링처럼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시간이 흘렀을 때 자기가 이런 프로그램 참여했었지 하는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억으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재능 기부해줄 수 있고, 직업이 다 바뀐다고 하는데, 문화 예술적인 부분이 하음이 컸을 때 직업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윤동희

살아가는 힘이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가진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회복력이 빠른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이 그런 힘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세계의 실험대에 올랐다고 생각됨.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계속된다면 아이들을 지켜보신 부모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문화예술교육이 된다면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강우 아버지

문제점이기보다는 희망적인 그것을 자주 봤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공감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이 많이 나왔어요.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따로 만들어서 각자 소개해주는 정도의 소통이 다였던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만드는 활동이 줌(zoom)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 발달해서 자기가 만든 것을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서 파일로 보내고 각자의 것들이 합쳐져서 영상에서 그래픽으로 합쳐지고, 무궁무진하게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술적인 것들과 기반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전혀 문제없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하게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더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윤동희

아이들 인터뷰에서 강우가 4D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냈었는데, 온라인에서 하지 못하는 소통도 기술적인 해결이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손하음 어머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활동을 하고 제일 좋았던 시간이 언제나 그랬더니 같이 공놀이를 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면적인 것도 중요한 것이라,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적응해야 하겠지만 소수라도 아이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동희

하음도 인원 제한해서라도 안전하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김서운 어머니

온라인 수업에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입장입니다. 문화예술교육도 온라인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어린 나이부터 온라인 매체를 접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들이 보내신 상자를 보면서 감동을 했는데, 어떤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마스터 플랜이 다 짜여져 있고, 그게 미리 준비 되고, (학교 온라인 수업에서 뭐를 하세요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크크키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모든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바로 흡수 할 수 있구나 느꼈어요. 이 수업은 배워간다고 보다는 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수업이라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준비만 미리 되어 있다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동희

세 학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가 걱정한 것 보다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진행하는 선생님들께 부탁,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신강우 아버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손하음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프로그램도 준비 잘하시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예체능 학원도 못가서 문화예술적인 부분은 끝났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채워져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김서운 어머니

저도 수업을 매시간 지켜본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다 이야기했을 것 같고, 아이가 학교 수업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이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많이 있었구나, 아이가 올린 과제물에 댓글 달아주시는 걸 보면, 그런 관심이 앞으로 온라인이 계속된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윤동희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 시	2020. 10. 25.(일) 19:00
장 소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참 석 자	- 모더레이터 : 윤동희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작가) - 직장인 문화예술교육(우드카빙 프로그램) 참여자: 이규준

윤동희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에 대해 달라진 점, 온라인 참여 활동이 이전과 어떤 것이 달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규준님께서 참여하신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규준

예술 심포에서 하는 우드 카빙 초급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 2번째고, 다음주가 3주예요. 초급반은 3주 과정으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심화반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동희

그럼 참여하고 계신 것은 직장인 문화예술교육으로 퇴근 이후에 수업이 진행되나요?

이규준

금요일 저녁 7시 반 수업이어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일에도 늦게 퇴근하는 것은 아니어서 무리한 것은 아닌데, 집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서둘러 오긴 합니다.

윤동희

온라인 수업해보니 어떠세요?

이규준

온라인 수업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요, 전에 다른 직장인 교육을 한 적은 없지만,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하긴 했는데, 면대면과 비대면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과의 얼굴을 직접 보거나,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경험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도 선생님 별로 과정별로 느낌이 다르다

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까지 수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말씀도 잘해주시고, 잘 짚고 넘어가 주셔서 수업 자체는 잘 듣고 있습니다.

윤동희

생각보다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 거 내요?

이규준

약간 불편한 점은 제가 듣는 수업이 조각하는 수업이다 보니 제가 조각을 하면서 중간에 점검할 때 카메라에 모양을 비추어서 어떤 모양인지, 아니면 제가 작업하는 것도 카메라에 비추어서 이 정도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여쭙 봐야 하다 보니, 화면상으로 모양새라던가 제가 조각을 제대로 했는지, 느낌과 질감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윤동희

저도 조각은 실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듣는 피드백이 중요할 것 같아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주시는 것 보니 불가능한 것은 아니네요. 직장을 다니셔서 일상이 바쁘실 텐데 그런데도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규준

저는 이 전부터 조각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찾다 보면 장소가 수월한 곳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을 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면 조각 같은 경우 원데이클래스가 비용이 비싼 편이에요(정확히 가격은 모르지만 20-30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동 시간(갔다가 귀가하는 시간), 수업을 참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 측면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훨씬 저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희

온라인 수업이 좋은 점이 있네요. 어제 초등학생 참여자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걱정만 하던 온라인 수업도 참여자분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규준

현장에 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면서 익히고자 하는데 많은 분이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하셔서 그런 면에서 온라인이 소통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윤동희

그럼 지금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규준

지금 1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체 대화방을 통제하고 계셔서 참여자들이 말하고 싶다고 손들고 하지 않는 이상 마이크를 안 켜주세요. 대신 채팅창이 열려 있어서 채팅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데 대신 다른 참여자분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없기는 하고, 다만 나는 여기 집중해서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동희

그러면 선생님과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참여자분들과는 그런 기회가 없으신 거군요?

이규준

서로 알아갈 시간은 없다고 봐야죠.

윤동희

사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같은 취미를 가진다는 것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규준

네, 제가 최근 들어 운동을 시작한 지 2주가 되었는데, 같이 부딪히고 같이 운동을 하는 환경이다 보니

그분들과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친분을 쌓을 수 있다는 여건이 된다는 점은 차이가 있죠.

윤동희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만난 참여자들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후의 활동을 이어가는 점들이 있는데, 비대면 수업에서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 수 있겠네요.

이규준

강사와 안면이 트이고, 제가 듣는 수업은 기간이 짧은 수업이다 보니 만약 제가 이 강사의 수업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강사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희

조각하는 취미를 가지신 직장인 너무 멋지신 것 같은데, 그전에도 다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참여하신 적 있나요?

이규준

정부 지원 사업 형태로 참여한 적은 없었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연극동호회 2년 정도 하고, 관심이 있어서 스윙 댄스도 하고, 1년 반 가량 재즈댄스도 해 보았어요.

윤동희

직장생활을 매일 하면 지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좋아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힘든 일인데 그런 에너지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이규준

직장에서의 자아실현과 개인적인 제 삶에서 자아실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마음이 행복한 뭔가를 찾아야지만 그게 제 삶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봐요.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먹는 거보다 제가 즐겨워 보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것은 도전해보고, 그 과정에서 저랑 안 맞는 것도 있고 재능이 안 되어 실력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부딪히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다 보니 새로운 것 하나하나 제 몸을 쓰면서 작지만 약간이라도 이루었을 때 좀 더 기쁨도 느낄 수 있고 성취감도 있고, 회사에서도 또 다른 성취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업무이다 보니 스트레스 받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운동희

문화예술이 힐링이나 스트레스 풀어주는 도움의 역할이 되기도 하네요.

이규준

네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운동희

그럼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하세요.

이규준

제가 보면서 관심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을 때는 이야기 하죠. 그런데 많이들 동참은 하지 않으시고, 주변 분들도 이미 활동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세요. 성향과 취향이 다르다 보니, 저는 조각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나는 운동에, 나는 음악을 좀 더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참여하는 분야도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친한 지인한테는 같이하자고 하는 편입니다.

운동희

그래서 같이하신 분들이 있나요?

이규준

춤출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번 조각의 관심사는 그분들의 관심사와 공통되지 않으니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운동희

규준님께서 주변에 활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규준

그분들도 하시다 보면 저보다 더 활력 있게 참여하고 계세요. 정말 재밌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열심히 참여하고 계세요. 회사와 또 다른 삶의 재미를 찾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운동희

일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을 예술이 많이 채워주는 것 같네요. 이런 것을 몰라서 오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규준님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이규준

이번 수업은 검색을 하다 보니 주기가 있더라고요, 관심이 항상 있지만 찾아보고 여기는 힘들겠다 얼마 뒤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하다가 ‘예술심표’를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링크를 타고 가다 보니 수업 자체가 초급반인 것 같고, 비용도 저렴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3주니까 짧지만, 오히려 부담이 적었고, 내용도 무난하고 해서 이거 먼저 들어보자 버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온라인이어서 부담 없이 시작한 것 같아요.

운동희

직장인분들에게 이런 문화예술교육이 많이 알려져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분들에게 정보상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규준

국가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나왔을 때는 홍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하는 채널만으로 홍보가 된다고 보이고, 정부 주도로 하다 보면 어딘가 공지를 띄워놓고 지인과 인맥 정도의 루트밖에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는데, 국가 차원의 홈페이지, 정보 허브가 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이트가 있으면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클래스 101과 같은 플랫폼 혹은 정보를 취합해주는 플랫폼이 있고, 그 한 채널이 홍보가 잘 된다면 유입경로가 다양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할 때 찾아봐야 하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본다던가, 예약해서 실제로 본 다음에 마음에 든다, 안 든다고 하는 시행착오 겪을 수 있는데, 그나마 그것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의 정보표털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해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고 바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윤동희

그런 수단이 마련된다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직장인 분들 늘어날까요?

이규준

정보를 모아주는 채널이 있으면 도움은 될 것 같고, 다만 이거 하나가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결국 참여하는 사람이 실제 마음을 내고 하겠다, 안하겠다를 결정하는 것이라 누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사회가 나의 개인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볼래 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많은 제도들이 있고, 많은 톨이 사회적으로 제공은 되고 있지만, 이것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참여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운 부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 피곤해, 지쳤어, 쉬어야 해”라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 라이프밸런스를 좀 더 중시해주는 형태로 말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희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다녀오시면 바로 쉬시잖아요. 요즘에는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경우도 없더라고요. 요즘이 개인적인 취향이나 취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인분들에게 프로그램 보기에 편협되거나 다양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은 있으신가요?

이규준

특정 시점을 본다면 특정 기간에 아주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관심을 가진 분야 중에 음식 발표, 술 만드는 것 배워보고 싶은데, 연중으로 놓고 보면 간혹 수업이 있기는 한데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분명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는 느낌은 있는데, 알아볼 수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것과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홍보했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같은 퀄리티의 수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수나 횟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양하면 좋으나 다양한 만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희

하신 말씀 중에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공

감합니다. 직장인들은 스스로의 취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참여자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규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방법이 어렵잖아요.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는 게 소수 인원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정리되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그 특정 소수의 사람에게 혜택이 될 것 같아요. 지속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메뉴 식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런 분야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이트가 있다면 사람들이 투표만 해보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실제 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에 맞추어 수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동희

관심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네요.

이규준

요즘은 카톡 채널도 많아서 사이트 채널이 있다면 그곳으로 홍보가 되고, 관심 있는 분들 클릭해서 미리 알려주세요. 한다면 대략적인 관심 참여자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정부 지원사업에서 반별로 인원이 크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윤동희

다른 기관이나 정부 지원에서도 수업을 듣고 계신 데, 진행방식이 어떠세요?

이규준

오프라인을 비교하기는 힘들고, 온라인 방식에서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받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임시로 하나의 창을 두고 있고, 모두가 참여한다고 하면 소통의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보니 모든 분들이 서로 배려를 잘 해주시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는 수업에 있어서 수업 진행에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준비물, 사전 안내 미리 잘 보내주시고, 미리 링크도 잘 보내주셔서 운영은 잘된다고 보입니다. 참여자로서는 수

업 함께 하는 참여자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그런 점은 좀 아쉽죠. 다른 분들은 언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윤동희

언택트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데, 온라인 수업 계속 진행한다면, 교류의 아쉬운 점 해결방안 있을까요?

이규준

지금 수업도 채팅창은 되고 있는데, 서로 대화를 주고 받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의 동일한 물건을 만들면서 선생님에게 검사받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자기소개 세션이 없었고, 어색하신지 카메라 끄고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메라 켜고 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됩니다. 만나는 것보다 벽이 한 번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중에서 재밌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관심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 수업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닌다거나 하는 분들도 있고. 현장감은 그대로 재현하기 힘들다 보니 상황/세팅 자체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서 극복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비대면에서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현장에서 하는 활동 중 춤의 경우, 특히 커풀 댄스의 경우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내용 자체에 반드시 만나서 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 보니 제약이 있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기보다는 온라인에 좀 더 맞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윤동희

지금 듣고 계신 조각 프로그램 심화반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레벨업 된다면 계속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규준

네, 저는 만족하고 있고, 지금은 조각할 때 칼 쓰는 방법 몇 가지 배운 거긴 하지만, 심화반에서는 브런치 세트라고 해서 목재로 만든 칼, 포크 만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모양 적으로 복잡해지는 느낌이라 어려워질 것 같기는 한데, 만약 심화반으로 간다면 어느 레벨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정도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동희

온라인으로 진행한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다는 희망도 봤다가 장르와 분야별로 한계지점이 분명하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워낙 다양한 분야를 알고 계시다 보니 그런 부분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규준

만약에 다른 장르라면 문학과 관련된 장르는 비대면으로 해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글을 쓴다던가, 작품을 읽고 토론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관심과 경험을 공유해주는 것은 비대면 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친분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견 교류가 목적이자 보니 비대면이라도 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막연한 관심사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것, 소설 좋아하는 사람. 비소설 좋아하는 사람, 토론 혹은 발표 위주로 하는 곳도 있고 스타일이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작이 힘들죠.

조각도 처음에 그랬는데, 조각에 관심이 있는데 자세히 모르니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업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조각하는 것이지만, 각 분야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알아야지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동희

관심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막연한 상태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희

직장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규준

직장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은 내 삶에 활력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업무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행복한 지 알수록 좀 더 그 방향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 스스로 주변인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고, 그분들도 좋은 영향을 받으며 서로 발전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윤동희

온라인이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이규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망설이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망설이세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아무리 고급음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듯이 주저하지 말고 우선 시도해 보고 경험해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윤동희

말씀을 듣고 보니, 비대면 시기의 문화예술교육이 지속 가능할까 하는 것이 과제였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온라인, 오프라인은 중요하지 않겠다 싶어요.

이규준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이후 집에서 만들어보는 DIY가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혼자 플라스틱 가지고 혼자 만드는 것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고 물어보니 유튜브 보면서 재료 구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악기 중에 칼람바라는 악기를 사서 집에서 유튜브 보고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또, 떠오르는 것 중에 예전에 가수 신혜철이 악기를 하나하나 연주해서 찍어서 동시에 합주하는 영상을 찍은 것이 있어요. 모임이 만들어져서 동시에 한 번에 다양한 방에서 연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한국에서는 다행히 인터넷이 잘되어서 온라인 디지털 밴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윤동희

문화예술교육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개인의 시간이 늘어난 이 상황을 포맷에 대한 장점을 살려서 한다면 많은 분이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을 기회의 시점일 거라는 생각을 규준 님 이야기가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네요.

이규준

과거의 틀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되겠다고 봐요. 틀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 면에서 내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듣기 좋아하거나 연주를 좋아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봅니다.

윤동희

오늘 이야기 해주신 내용으로 코로나 시기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원고로 잘 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술강사 인터뷰 기록

일 시	2020. 10. 13.(화) 17:00~19:00
장 소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참 석 자	- 모더레이터 : 호중훈(학교 문화예술교육 강사/만화애니메이션 분야) - 문화예술교육 강사 : 구본정 (예술강사, 연극 분야), 박경식 (예술강사, 디자인 분야), 박수연 (예술강사, 국악 분야), 박숙희 (예술강사, 무용 분야)

호중훈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의 변화, 현장의 지원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렸는데, 말씀해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내용 잘 듣고, 현장의 의견으로 잘 담아내겠습니다. 선생님들 작년에 문화예술교육 활동하셨죠? 작년에는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나요? 창의적 체험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코로나 19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박경식

저는 디자인 전공이고 작년에 고등학교에서 수업했어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학교 문화예술 수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술이나 디자인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올해하고는 상황이 아주 다르죠. 대면하지 않는 수업을 상상해보지 못한 1인입니다.

박수연

저는 국악 강사이고, 학교 예술강사 수업하고 사회 예술강사 수업 보조 강사하고 있어요. 또, 방과 후까지는 아닌데 학교에서 예산 조금 지원받아서 하는 수업했습니다.

박숙희

저도 작년에 학교 예술강사 수업(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었고, 특수학급의 경우 방과 후 수업

했었고, 특수학급 수업도 했었고 자체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했었습니다.

구본정

저는 초등 교과로 창의적 체험활동하고 기본교과 수업했었고, 오프라인 수업을 주로 했었고 작년에는 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활동만 했었습니다.

호중훈

작년에 그렇게 활동하셨는데 현재 활동도 비슷하신가요? 올해 2020년 작년과 비슷하신가요? 달라진 점이 있나요? 수업의 형태나 활동들 중심으로 말씀해주세요.

구본정

올해 초에는 학교 예술강사 수업이 잡혀있었고, 그 외에 오산시의 지원으로 교육 연극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정해져 있었어요.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교육 연극 수업은 학교에서 대상이 저학년이어서 코로나 19가 심각해지니까 상황을 보자고 하다가 두 달 후에 학교 측에서 취소했습니다. 그 뒤로 학교 예술강사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이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지만 강사들은 다음 주에라도 내일이라도 수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수업이 취소되어서

당황스럽다'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과 대화의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결국 포기 신청에 대해 기타 시수가 되어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을 계속 미룰 수 없었으니까 저학년은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정말 오랜만에 PPT라는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기억도 안 나는데 PPT를 다시 만들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씨름도 하고 주변 선생님들께 가르쳐 달라고 요청도 하면서 배워가며 진행하는 시간이었고,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호중훈

지금 다 등교해서 대면 수업하고 계신 거죠?

구본정

거의 그렇습니다.

호중훈

온라인 수업을 얼마나 하셨어요?

구본정

저는 온라인 수업은 거의 한 달 넘게 한 것 같습니다.

호중훈

다른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올해 문화예술 수업에 대해서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박숙희

저는 학교 예술강사 수업은 5월 마지막 주에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대면을 원했고 저도 대면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전혀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상황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고,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5월 마지막 주에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시작했고, 시작한 그다음 주부터 바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수업 말고 다른 학교 수업이 1학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수업 일정이 모두 있었는데, 그 또한 코로나 19로 계속 연기되었고,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도 수업을 하지 못했어요. 9월 초까지 학교 예술강사 수업에 참여하는 학교, 그 학교는 학급 수가 적기도 하고 학교가 '지금 이 시기에는

예술 수업만이 아이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어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했고,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어요. 특수학교 방과 후 수업은 1학기 때 3주에 한 번 했고, 2학기 되어서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날로 매주 수업을 잡아주셨고, 한 학교에서는 방과 후나 수업하는 선생님 대상으로 학교 방역 요원을 뽑았어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길래 교육 활동은 아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한 활동을 하며 도움을 받았었고, 2학기 되어서 2개 학교가 있었는데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서로 연락도 하지 않게 된 학교도 있습니다.

박수연

저는 작년에 한 학교에서 제 수업을 좋게 보시고 우리 학교가 '20년에 교육청 예산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업을 선생님이 주도해서 해달라 하셨는데 코로나 19로 취소되었고, 방과 후 수업도 모두 멈추었어요. 그 외에는 학교들이 융통성 있게 잘 배려해주셔서 저는 시수를 많이 소화했어요. 온라인 콘텐츠랑 같이 병행해서 시수를 좀 많이 소진해서 수업하는데 의외로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없으면 돌봄으로 돌려서 이것 먼저 하시라고 한 곳도 있고, 또 다른 학교는 인원수가 작아서 5월부터 대면 수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또 한 학교는 코로나 19 되면서 시작부터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이 상황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계신 강사분들 중에도 온라인 콘텐츠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학교랑 이야기가 돼서 초반부터 콘텐츠를 하시고 지금 콘텐츠 하시고 쉬다가 10월 돼서 수업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지 수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호중훈

올해 교육 활동에 있어서 학교의 배려라던가 그런 것도 좀 컸네요. 학교가 특별하게 코로나에 흔들리지 않고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을 돌봄으로 돌려주시고 배려가 있었네요.

박수연

돌봄으로 돌려주시고 조금 남는 건 선생님들이 연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진흥원으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진흥원에서도 올해는 괜찮다고 해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호중훈

학교를 배치받고 그 학교에 조금 오래 계셨나요?

박수연

올해 2년 차입니다.

호중훈

박경식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박경식

저는 올해 초, 3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배치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3월에는 모두 다 출강을 못 했고, 교육부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시작하라는 방침이 나오면서 4월부터 바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담당 선생님과 문제가 생겼어요. 수업 전에 학교 선생님이 저와 협의한 연간계획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으로 주제 변경을 요청하셔서, 제가 제안하셨던 내용 먼저 보여주고 계획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그것이 불쾌하셨는지 바로 예술강사 수업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지역 운영단체인 상명대학교와 진흥원까지 같이 가서 해결하려고 해주셨는데, 결국 다른 학교로 재배치하기로 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 학교 재배치가 잘 안 되어서 굉장히 먼 거리의 중학교를 배치받아 가게 되었어요. 이 학교는 기존에 공예와 만화애니메이션을 신청하여 공예는 배치된 강사님이 출강 중이었고,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는 강사를 배치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는 계속 배치가 안되다 보니 서울지역 운영단체인 상명대학교에서 분야를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서 제가 배치된 사례예요.

새로 배치된 학교 담당 선생님께서는 일주일에 4시간 계산해서 64시 수를 신청하셨어요. 이 시수가 많지 않은 시수이긴 한데, 예술강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하나 넘기면 4시수가 차감되잖아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동일한 콘텐츠를 넘기니까 일주일에 차감되는 시수는 4시수로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변수가 없는 한 약간의 변동은 생기겠지만 시수 문제에서는 불필요한 의견이 나올 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면 수업 간 날 공예 선생님이 ‘한 번에 온라인을 2개씩 올리니까 시수가 부족하지 않겠냐, 기관에 부족한 시수를 더 추가해서 요청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셔서 저는 ‘학교에서 요청하신 대로 온라인 콘텐

츠 한 개 올리고, 학교에서 4기수 차감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수 차감에 대해 요즘 학교마다 온라인으로 인해서 시수가 부족해지는 강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술강사가 운영단체로 추가 시수를 요청하지만, 부족하다는 학교마다 원하는 시수를 더 배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제가 배치받은 학교의 사례는 잘되고 있는 사례처럼 보여요. 일주일에 4시수씩 이니 하나의 온라인 콘텐츠를 넘기고 계산대로 4시수만 차감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 상황과 달리 A라는 강사는 디자인 분야인데 두 학교를 나가고 있어요. 두 학교 다 일찍부터 온라인 콘텐츠로 수업을 하고 1개의 콘텐츠를 4시수씩 차감하다 보니 지금 3기 수업하고 있는데, 4기 학생들 할 시수가 도저히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술강사 지역 운영단체로 추가 시수 배정을 요청했더니, 배정 가능한 시수가 없다고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러면 4기는 학교 담당 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나, 아니면 예술강사가 무보수로 수업을 해야 하나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제가 배치받은 학교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면, 제가 수업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담당 선생님이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2시간 블록 수업이면 온라인 콘텐츠를 2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2개의 콘텐츠를 올리면 나중에 시수가 모자라게 되니 1개의 콘텐츠를 올리고 배치받은 시수를 다 소진하는 것으로 잘 협의가 되었고, 저와 같은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공예 선생님도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처음에 2개의 콘텐츠를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이후에 저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시수가 부족하게 될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굉장히 난관입니다.

호중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올해 코로나 19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도 온라인 콘텐츠 수업이 시작되었죠.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과 공급, 이 부분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4시 수의 기준이 교육 현장으로 왔을 때 학교마다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학교의 연간 교육 활동이 시수로 계획된 것과 상이하여 혼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년과 올해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교육 활동의 양(횟수)에 대한 변화가 있으셨나요?

박숙희

학교 예술강사 수업 말고도 당연히 줄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실행된 것은 계획 세워졌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호중훈

어떤 게 줄었나요?

박숙희

수업이 취소되었어요. 보장도 받을 수도 없고, 계속 무기한 연기되고 미루어지다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호중훈

수업의 취소라는 건 학교, 사회 문화예술교육 모두 말씀하시는 거죠?

박숙희

어떤 학교는 1학기에 계획했던 학교가 있었고 2학기에 계획했던 학교가 있는데, 1학기 계획했던 학교가 수업이 모두 연기되어 학교가 2학기에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지만, 제가 2학기에는 이미 계획된 다른 학교가 있어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선생님, 뉴스 보셨죠.' 하면서 미루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약서 쓰지도 못하고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늦춰지다가 어떤 학교는 서로 연락도 안 하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호중훈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올해 문화예술교육 큰 특징 이야기했는데 그 지점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대면과 비대면, 우리는 그동안 콘택트 환경의 수업을 재미있게 잘 해왔어요. 그런데 비대면 수업으로 올해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들이 더 갈 수 있다. 더 찾아올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은 대면 수업을 해왔고, 코로나 19 환경에서 비대면 수업이 등장하며 경험하고 계시는데 대면과 비대

면 수업에 대해서 교육 환경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학교 문화예술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예술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겹쳐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에서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올해 느끼신 점을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본정

일단은 전에는 연극 수업을 교실이나 장소에서 한니까 일정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수업이랑 매끄럽게 연결하는 게 가능했는데, PPT로 만든 콘텐츠. 동영상도 들어가고, 사진도 들어가고 목소리 들어가고 얼굴도 밑에 띄우고 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을 알 수 없고, 아이들이 듣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저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집에서 온라인 콘텐츠 수업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했더니, 집에서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져서 참여한 아이들은 기억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의 친구들은 아예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했어요. 똑같은 반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적절하게 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개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중훈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나 학습 효과가 어떤지 반응을 전혀 모르니까 실제로 대면 수업에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개개인별로 학습의 차이가 나더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차이점들을 느끼셨나요?

구본정

개별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박경식

구본정 선생님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이다 보니 더 대면해야 하는 수업들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한 학습을 해야 하는 교과 수업조차도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예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본정 선생님 말씀처럼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학습 환경이 개인의 가족 구성원을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도 굉장히 다르고 변수가 많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아

이들 학습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이미 나오고 있고, 초등에서도 저학년일수록 그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1~3학년들은 옆에서 직접적 지도가 필요한 나이고 학습이라는 걸 수업이라는 걸 직접 보면서 배워야 하는 나이잖아요. 그 연령의 특징인 건데 그 시기를 온라인으로 보낸 아이들이 어찌 될지 교육계나 부모 입장에서 걱정들이 큰 거죠. 저도 오늘 중학교 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온라인 수업의 내용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니 역시나 소수의 몇 명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학교는 학년이 3학년 제라서 아이들을 나누어서 등교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는 가서 대면으로 만나고 2주는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요. 온라인 콘텐츠 수업과 대면 수업이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참여도가 다르므로 전체적인 수업이 잘 연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호중훈

선생님 중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박수연

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 친구들 대상이에요. 기관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35회기를 꼭 다 채우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돼서 세 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에서 국악 수업과 연관된 악기 만들기 수업을 해주세요라고 하셔서 거기에 맞게 만들고 있고, 다른 한 곳은 노래를 위주로 한 수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호중훈

어떤 형태로 만들고 계세요?

박수연

기관에서 캠코더랑 다 빌려준다고 하셔서 기관에서 찍으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안 돼서 기관의 공간을 빌려서 촬영하고, 다른 기관의 노래 수업은 일반적인 수업하는 것처럼 PPT로 들어가면 친구들 보기 힘들 것 같고 아직 한글을 못 읽는 친구들도 있어서 수업하는 것처럼 찍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중훈

그럼 자연스럽게 이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선생님들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같이하면서 어렵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더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느꼈던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세요.

박수연

소통입니다. 아이들이 잘 보고 있는지, 부모님이랑 잘 보고 있는지, 저는 그나마 고학년 아이들이 댓글을 달아요. 제가 피드백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지 않았는데도 고학년 아이들은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그런데 저학년 아이들은 이걸 봤는지, 어떠했는지,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올 때 물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보고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히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죠. 특히 악기 같은 경우, 온라인 콘텐츠에 최대한 쉽고 짧게 보여준다고 해도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호중훈

지금 국악 분야는 악기를 다루는 특성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해본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겠다. 선생님만의 방법을 생각해보신 것 있으세요?

박수연

코로나 19 상황이 되면서 자료정리가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작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면서 담당 선생님들이랑 통화를 많이 했고, 올해처럼 담당 선생님과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한 게 처음이에요. 안 될 것 같으면 담당 선생님께 전화해서 물어봐서 이 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이들 피드백까지는 아니지만 담임 선생님들의 피드백은 저한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과 하고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이게 쉽다 저게 쉽다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호중훈

담당 선생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에 반영하는 변화까지 있었네요.

호중훈

구본정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구본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의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실제 어떻게 보일 것인가, 아이들은 이걸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불확실한 상황과 또 연극은 즉흥성과 현장성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보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상태에서 어떻게 현장성 있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부분들, 대면 연극 수업 자체를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실에서 하면 시범을 보이는데 삼각대 세워놓고 동영상 촬영으로 시범을 보이고, 동영상만 찍으니까 와닿지 않아서 마이크를 갖춰서 달고 대사를 하다가, 또 요즘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예민한 시대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쉬운 편집 프로그램을 알아봐서 시간 날 때마다 편집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완성하면 수업에 쓰고, 또 완성하면 PPT에 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완성하는데 5~6시간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서 발전한 부분은 저의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어떤 연극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선생님 시대가 변했다고 이제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지 못하니까 도태될 뿐만 아니라 일이 진행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조금이나마 하려고 시도하고 좌충우돌 겪다 보니 이제는 2~3일 걸렸던 것이 그렇게 시간 소요를 하지 않아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호중훈

박숙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박숙희

저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구본정 선생님처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란 걱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콘텐츠를 어떻게

아이들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투입된 질 좋은 콘텐츠는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장비도 없는 내가 그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제일 많았어요.

‘과연 아이들이 어쉴픈 이 콘텐츠를 볼까?’ 대면 수업에서 무용 수업 신다고 하면 왜 쉬냐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수업을 다 좋아했었는데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줄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일주일 넘게 했어요. 일단 아이들이 화면을 보지만 정말 수업하는 것처럼 기술적인 것은 현란하지 않아도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너무 스트레스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만들자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몰랐던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지겹지 않게 호기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고민으로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하는 것처럼 마스크 쓰고 하다가 이제는 마스크 벗고 하고, PPT보다는 내가 직접 나와서 하는 걸 만드는 게 편했어요. 저는 아직도 하나만 드는데 며칠 걸리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점은 저도 역시 피드백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보내고 수업을 하고 다시 온라인 콘텐츠를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돌봄 수업이라 학교에서 온라인 콘텐츠 보게 하기는 하는데 컴퓨터실에 앉아서 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할 수 없었고 눈으로만 봤더라고요. 집에서 한 아이들도 눈으로만 봤고 엄마가 따라 했다고 했습니다. 한 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인데, 아직 만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1학년은 조회 수가 1/5도 안 보는 거예요. 저는 밤새워서 아침까지 만들었는데 제 콘텐츠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아예 보지 않는 것을 보고 1학년 수업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학교 과정에서도 1학년은 담임 선생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온라인(zoom) 수업을 불러드리기도 힘든 상황이고 환경도 천차만별이라 하더라고요. 어떤 학부모님은 옆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어서 편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만들 때 속도보다는 실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해보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담아

(각 학교가 저학년이어도 20분을 원하셔서) 20분 분량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곧 학교에 가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아이들이 실제로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묻기가 두려워요. 안 했으면 다시 시작해야 하나? 이것도 기초가 있는 것처럼 이 단계를 밟아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보통 물어보면 거의 안 했고, 눈으로 봤던 아이들도 한 번 다루어 주니까 새롭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직접 보면 선생님이 안 한 아이들은 하자고 할 수 있지만, 집에서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학교는 내가 하고 싶다 아니냐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교를 벗어나지 않으니 독려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중훈

박경식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박경식

앞의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비슷합니다. 학교와의 이야기도 소통이 문제인 것 같고 학생들과 만나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 박숙희 선생님 말씀처럼 소통이죠 라고 하는 데 공감했습니다. 학교와의 소통이나 학생들과의 소통에서 우리만의 해결책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본정 선생님 말씀처럼 기술적인 것은 하다 보면 시간이 단축되고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시간이 뒤로 갈수록 해결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소통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든 진흥원이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중훈

선생님들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술강사가 느끼는 비대면 수업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아니면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이전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숙희

저는 처음에는 비대면 환경이 되면 예술 수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없으면 딱딱하고 건조한 삶이잖아요.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삶에 꼭 필요하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집 발코니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몽클했어. 이 각박한 시기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밖에 없구나, 해야겠구나, 뚫어야겠구나, 더 활성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문화예술교육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문화예술교육의 방법이 ‘따라 하세요’라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너무 많이 하니까 생각하기 싫어하는데, 오늘 모둠 창작 수업하다가 저거지 라고 느꼈던 게 아이들이 서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뇌를 쓰고 서로 소통하고 실행해보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제작하면서도 이런 과정을 넣고 싶었던 거였어요. ‘따라 해보세요’라는 방식으로 했었다면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콘텐츠는 이미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서 어떻게 아이들의 생각을 활동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제일 많았어요. 특히 요즘 시대는 ‘놀이’ 활동이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어렸던 시기에는 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기지?’, 실수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이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생각이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점 때문에 예술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아이들도 이 시간에 엄청난 걸 할 수 없으니까 이 시간 안에서 스트레스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아이들이 바보상자처럼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사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온라인 콘텐츠에 반영하는 연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미 좋은 교안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면서 우리도 발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중훈

온라인 콘텐츠 연구도 필요하고 발전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다른 분 의견도 또 있으신가요?

박수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온라인 콘텐츠 만들면서 어차피 시대가 그래서 공부해 줘야겠고, 자료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요즘 자극적인 거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랑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우러져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주변에 아이 엄마인 친구한테 제 콘텐츠를 보여주고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아이들 흥미를 위해 방탄소년단도 넣고 했는데, 친구 아들이 그걸 보더니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좀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나름 쉽게 재미있게 하려고 시각적인 걸 넣는다고 넣었는데도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걸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하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원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숙희

저는 옛그제 똑같은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 교사인데, 요즘 현란하게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매력이지 않을까 이야기하더라고요.

호중훈

저희 공통 질문의 마지막 질문인데, 코로나 19로 교육 활동이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박경식

올빼미족, 집에서 방치된 아이들,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준비하느라 낮과 밤이 바뀐 예술강사의 아이들은 오히려 방치되고 있습니다.

호중훈

결국은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박경식

대부분 선생님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능숙한 선생님들이 없었습니다. 안되는 거 해야 하니까 시간도 많이 갔지만 만들어본 사람 다 압니다. 잠깐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녹음을 해야 하니 주변이 조용해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잠든 시간인 밤에 할 수밖에 없습

니다.

저는 연극, 무용 선생님 의견에 조금 더 보태고 싶습니다. 코로나 19가 끝나더라도 100% 대면 수업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온라인화가 되진 않겠고, 특히, 우리 분야는 100% 온라인이 될 수 없는 분야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박숙희 선생님이 예술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셨고, 박수연 선생님 이야기처럼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으로서는 내 노고를 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지내보면서 결국 아이디어 싸움 같습니다. 이런 아이템, 콘텐츠, 또 이런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 그룹이나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술강사도 전문가에 들어서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호중훈

결국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경로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냐는 고민과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말미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교육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숙희

긍정적인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현장에서 내용은 잘 못 전달되더라도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온라인 콘텐츠는 내 발음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고, 또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로 영상으로 제작하다 보니 1인 PD가 되어서 각본 다 쓰고 수업 전개가 이게 맞나? 고민하며 더 섬세해지고, 화면에 나오는 결과물을 보니 나 자신의 수업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첨단화되면서 AR, VR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시기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모든 걸 다 배운 게 감사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만들어진 온라인 콘텐츠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20분 수업을 준비하는데 자료는 100분을 넘게 준비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고 소통도 어려웠으나 이 기회가 우리에게 앞으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호중훈

구본정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점을 신경 쓰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구본정

일단 개별적으로 수업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데이터로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다시 체계화시키는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저를 볼 수 없잖아요. 내 목소리나 내가 만든 영상을 통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진흥원에서 ‘마이크로 티칭’이라는 연수했잖아요. 그때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앞에도 못 설 정도로 부끄러웠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바로 보이니까 대단한 걸 만드는 것이 아닌데도 녹음을 하고 또 하고 다시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을 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호중훈

다들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교수학습 활동하는 데도 그렇고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도 비슷한 애로사항이 결국 비슷한 발전과 고민과 질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강사와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현장의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활동을 하시다고 했었어요. 어떤 사업에 참여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그 사업이 없어졌든가 변화를 맞았다든가 그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구본정

저는 1학기에 수업을 못 했습니다. 8월 말부터 조금 하긴 했지만, 확실히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부분을 느꼈고, 아까 박숙희 선생님이 방역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소득 같은 걸 합니다. 아이들이 오든 안 오든 하는데 저는 오산에 사니까 수업하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학교였고, 기

간이 짧아서 참여했어요. 수업에 들어가면 못 하니깐 그러면서 많은 돈을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호중훈

예술 강사 활동이 1학기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학교든 사회든 대부분 정지되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경제적으로나 다른 지원을 받으셨나요?

박숙희

저는 코로나가 생길지 모르고 올해 초에 배치된 시수를 고려하여 계획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작년 12월 중순부터 5월 중하순까지 0원이었습니다. 매달 얼마씩 나가야 하는 비용이 있어서 선지급금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지급금 신청하면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준다 했지만, 선지급금 받아서 그나마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또, 서울지역에서 준 재난지원금 30만 원 하고, 국가에서 준 1인 가구 지원금 받았어요. 그 외에 저는 특고형 프리랜서 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만들려니 노트북도 필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은 구형이어서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고 하다가,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 참여하면서 받은 비용으로 새로운 노트북도 마련하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부양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미리 현금을 확보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적인 상황에서 어땠을지 궁금했습니다.

호중훈

다른 분들 어땠나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해결했다던가. 사업을 신청했다던가 사업에 참여했다던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박수연

저는 특수형태 프리랜서 지원금 한 번 받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신청했는데 지원을 받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올해 무언가를 해야지 하고 모아 놓은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으로 어찌어찌 버티긴 했어요. 아마 그 비용이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박경식

저는 하나도 못 받은 사각지대입니다. 우선 작년에 다이어리 보니까 12월 말까지 열심히 수업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4월에 온라인 콘텐츠를 시작했으니 1~3월까지의 수입이 없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니 이렇게 조금 걸리고 저렇게 조금 걸리고 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슬픈 사각지대입니다. 저 같은 선생님들 많았을 것 같아요.

호중훈

선생님들께서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셨을 때 실제로 교수 학습 활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느끼는 것 중에 문화예술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구나 느끼신 게 있나요?

박숙희

다른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으로서 역량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요. 진흥원에서 저희를 위해 많이 애써주시는데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것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수업을 못 하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 시대의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모임을 빨리 조성해 주셨다면 저희가 지금쯤 굉장한 역량을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미 충분히 습득된 것 같아요. 이 역량은 저처럼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경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영상에 전문적으로 뛰어든 사람들하고 저희는 1인 역량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량에 대해서 여러 연수를 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를 위한 연수의 장만 열어주신다면 이미 준비된 선생님들이 교육부를 능가할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실 자원들이 넘쳐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중훈

연수의 장이라는 건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모임으로 학습하는 COP 같은 연구모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숙희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강사의 일대일의 역량은 너무

훌륭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흥원에서 주셨지만, 유튜브 찾아보고 만든 겁니다. 학교에서는 '콘텐츠 하나당 4시수라고 하니 콘텐츠 하나당 4시수구나!'라고 싶게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 '진흥원에서 연수 다 해주시죠?'말하는데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물론이죠.'라고 말을 해놓고 잠을 못 잤습니다. 예술강사가 너무 훌륭한 게 어떻게든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호중훈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업을 잘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하는 본연의 몫일 수 있지만 결국은 진흥원, 예술강사, 운영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모색 점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발전적으로 고민하는 것이죠.

박숙희

내년에 1인 강사가 아닌 팀 파견이 이었는데, 팀 파견이 팀 구성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잘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구성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니 잘 구조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중훈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코로나 시대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느낀 것이 있으시나요?

박경식

지금 코로나로 5년이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저는 생활에서 실감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 온라인 수업 들을 때 보면 학교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³⁾라고 하는데 기계 정말 잘 다룹니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광고 디자인 수업이 국어 지문 안에 들어가면 광고 디자인 아이들이 다 만들어요. 그럼 선생님들의 역할은 온라인에 광고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앱을 보여주거나 사례를 보여주시고 아이마다 집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광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섭의 시대, 융합의 시대 말이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 결국 우리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우리 진흥원에 소속된 예술강사는 예술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앞으로 공부하고 배

워서 현장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업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박숙희 선생님 말씀처럼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같이 이렇게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도 분야별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는데, 만약에 분야별 강사님들의 줌(zoom)을 통한 논의의 장을 연다면 서로의 활동 과정을 공유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모아내고 연구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숙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가 저에게 힘들었던 시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면서 저만의 노트를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하는 노트입니다. 도입부, 전개부, 마무리까지 썼습니다. 그걸 쪽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니까 구글에서 검색해서 사실 확인해보고, 괜찮은 이미지인지 아닌지 이미지 출처 밝히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 노트가 제 자산이 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러신 것처럼 개인의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이걸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서 분야별로 의논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해요.

박숙희

저는 이런 게 준비되어 있으면 도서벽지로 나간 선생님도 갑자기 바다 상황이 안 좋아서 학교에 못 간다 해도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자고 하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비대면이 아니라 앞으로는 도서벽지도 선생님이 직접 가면 더 좋겠지만 가기도 하고 못 갈 때는 어디서나 문화예술교육을 할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호중훈

이번 진흥원 프로그램 공모에서도 제목을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박숙희 선생님 노트북 사셨다고 하셨는데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새로 준비하시거나 새로 구매하신 기자재가 있으시나요?

박수연

노트북 샀습니다.

박경식

저는 프로그램 샀습니다.

박숙희

저는 핸드폰도 바꿨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하려다 보니 핸드폰도 노트북도 기능이나 용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받쳐주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용 수업이다 보니 제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각대도 구매했습니다.

호중훈

박수연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서 장비는 대여하셨나요?

박수연

저는 핀 마이크, 조명을 구매했습니다.

구본정

저는 ppt 만들 때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MS 프로그램 2000 최신 버전 구입하고 핀 마이크도 구입했습니다.

호중훈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선생님들 지원의 필요성을 느낄 거예요. 하나 더 여쭙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온라인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생각이신가요?

박숙희

네 그럼요, 참여합니다. 저는 자체 연구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강사일 경우는 수업내용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경력 있는 강사님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연수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 모임이 필요합니다.

박수연

박숙희 선생님처럼 강사들이 기술적인 건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PPT를 만들고 영상을 집어넣고 음원을 입히고 어느 정도 수준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만들다가 여기서 무용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며 아이디어 내고, 영상 넣고 해보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중훈

선생님들 아까 좋은 말씀 하나 해 주셨는데 상호작용, 특히 비대면 방식에 있어서 상호작용에 대한 수업 콘텐츠를 잘 소화했는지 측정을 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코로나에서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아쉬움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떤 지점이 더 필요하다. 어떤 지점이 잘 되고 있다. 혹은 여전히 과제다라는 것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피드백이나 대화 같은 것,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에서 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노력하신 점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게 문제다 해결해야 할 것 같다,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야기가 필요하다 등 자유롭게 의견 주세요. 상호작용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박숙희

대면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이 많으므로 상호작용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이 30명인 학교도 가봤고 15명인 학교도 가봤는데 인원수가 적으면 아이들 이야기 다 들어주고 싶고 그게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목말랐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상호작용 전혀 모릅니다. 댓글 달면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댓글도 없고 이거 했나요? 잘하고 있죠? 멋지게 했네요 하고 저 혼자 말하고 학생들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도 예술 수업당 학생들 수가 많으니까 어려웠던 게 온라인 콘텐츠로 가니까 들을 수 없으니 짐작만 하게 됩니다.

구본정

저는 인원에 대해 박숙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 반에서 1/2(15명)로 인원을 줄여서 똑같은 수업을 두 번 하는데 확실히 질적인 차이가 난다고 느꼈어요. 30명 수업은 정신이 없는데 15명 수업은 최적화된 느낌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 줌(zoom) 수업을 하고 왔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오늘 수업 어땠는지 5글자로 이야기 해봐요' 하면 그나마 피드백할 수 있었는데, 저 혼자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고 아이들은 화면만 보고 있고 '이게 뭐지?' 두 시간 내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차츰 하다 보니 아이들이 반응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이후에는 이름도 부르며 말을 던지고, '얼굴이 안 보인다.' '오늘 결석 처리할 수도 있어'라고 하

면서 그나마 반응이 조금씩 생겼어요. 줌(zoom) 수업은 소통에 있어서 반응이 좀 더 나왔다는 느낌이었어요.

박경식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는 대면했을 때는 아이들 한명 한명과 과정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소통인데 비대면은 그게 안 되다 보니 아이들이 과제를 올리면 선생님이 그 과제를 피드백 해주는 것이 전부이죠. 그것도 소통의 부분이 된 것이고 물론 수업 외 시간을 쓰시는 거죠. 학교에서 요청해서 하시기도 하고, 아이들과 소통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우는 다르지만, 학생들과의 피드백은 그걸로라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밴드를 이용하는 학교는 댓글로 소통하거나, 구본정 선생님과 말씀처럼 학생과의 소통은 줌(zoom)이 제일 원활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을 부르면서 소리라도 소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 또는 과제물이나 글로, 이미지로 주고받는 피드백, 그 외에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저학년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할 정도로 학교에서도 소통을 어려워합니다.

호중훈

어려움, 만족, 보람, 과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러나 코로나 시기 문화예술이 맞는 코로나 변화 대응,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쉬운 표현으로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작은 도움이든 큰 도움이든 수업을 위한 지원이든 사회적 지원이든 나는 예술 강사로 이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수업 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있어서 좋아질 것 같아. 지원이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시기, 이 시간에 강사로서의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질문이 무엇인가? 어떤 질문이 드는가?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수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지 어떻게 바뀔 수 있지, 아이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지,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점이 바뀌고 있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학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씩 보여요 어떻게 내 수업이 변화할 수 있을까 나

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그럼 먼저 현장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박경식

결국 아까 나왔던 말인데 분야별 다른 분야라고 연구 모임이 지원되었으면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만남의 장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호중훈

이게 비대면 방식으로 가더라도 그런 형태로 연구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박경식

비대면이 지금으로써는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호중훈

줌(zoom) 회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박경식

많은 선생님이 코로나 이후 내 일에 대해서 바뀐 것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강사들의 불안감. 이 일이 전에 하던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불안감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나도 해내고 있고 할 수 있다고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공유하다보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좀 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호중훈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가 있는 것처럼 제가 예술강사 지원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예술강사의 정서와 심리예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뀐 것에 불안감이 있지만 해내고 있다. 바뀌고 있다.’라는 것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수연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돈입니다. 예술강사 대부분은 학교와 연관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와 같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학교에 수업이 제때 시작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지더라고요. 그러니 지원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 저는 특수형태 프리랜서 지원금 첫 번째 받고 못 받았는데 주

변에는 계속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본정

예술강사 사업은 지역별로 운영단체가 있잖아요. 운영단체가 통일해서 저희를 가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단체가 너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학교가 포기한다고 하면 포기해야 하는 거고, 나오지 말라고 하니깐 일정 빼놔는데 못 나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로 수업이 밀리고 국가적 재난이니깐 어쩔 수 없지만, 운영단체가 상황을 대처할 때 저희에게 지침을 제시해주고 학교에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중훈

현실적으로 강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운영단체의 행정이 탄력적으로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려웠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박숙희

저도 제일 아쉬웠던 게 운영단체가 기관으로서 강사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사들은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운영단체나 진흥원이나 학교에서 ‘따라 하기’ 수업이나 ‘결과발표회’ 요구하는 것을 강사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해 예술교육 철학을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하며 그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물질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정서적인 부분, 연구모임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수 못 채운 것에 대해 기관에 10분 정도 온라인 콘텐츠를 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차라리 연구모임으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수를 보장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만 보지도 않는 나의 콘텐츠에 대해 실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라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호중훈

지원 프로그램 같이 이야기해주세요. 연수든 사업이든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해주세요.

박경식

진흥원의 예산이 있다면 예술강사가 공부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확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타 콘텐츠 넘기면 누가 보겠습니까. 진흥원에서 사업하시는 예산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문화재단도 대면을 못 하니까 '수다방' 같은 거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예술교육가' 너무 솔깃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회 분야 예술강사도 했었고,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융합으로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남긴 기록이 없다는 게 후회가 됐습니다. 기록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이 시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것들도 콘텐츠를 기록을 남기는 자료화하는 것, 이런 기회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사회 분야에서 노인미술 어르신들은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전면 중단되었다고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해서 속상해하시던데, 이건 환경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사분들이 접속 방법 알려주시게 한계가 있는데 서로 안타깝지만 어쨌든 개선해야 하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런데 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숙희

초창기 교수 화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질문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교사가 언어로 풀어내는지, 특히 아이들과 비대면으로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발문이나 교수 화법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문과 교수 화법에 대한 교육학적인 연수를 받으면 교육의 질이 나아질 것 같고, 이것은 분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호중훈

예술강사의 이런 제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수다나 질문이나 엉뚱한 대화가 힘이라는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문화예술에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앞으로 모임 연수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직접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창의적인 주제로 프로그램 만들면 예술강사가 힐링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을 거로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배우고 느껴지는 겁니다.

질문은 지금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금의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미래에 나를 놓는 작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업에서도 '좋은 질문이 좋은 수업을 만든다. 좋은 질문이 좋은 미래를 만든다. 좋은 질문이 좋은 변화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마무리할 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코로나 19시대에 문화예술교육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구본정

저는 재택근무를 오래 하면서 제 삶도 연극 수업도 변화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를 겪는 시간. 그래서 변화하는 시점에서 예술교육도 어떤 방식으로의 변화까지 가능할까? 한계점을 놓고 싶지 않지만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고 실행해보는 시간입니다.

박경식

찰스 다윈의 '변화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변화를 해야 하네요.

저는 선생님들이 운영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쉬운 점들 공감했는데 호중훈 선생님이 하신 질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태도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기관이든 강사든 간에 능력보다 상황이 중요하다. 상황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최근에 접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태도라든가, 만났을 때나 온라인을 하는 태도라든가 학교 담당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태도라든가 기관에서 강사를 응대하는 태도, 강사가 기관에 응대하는 태도들이 있잖아요. '과연 나의 태도는?'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도에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태도도 있을 거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중훈

코로나 19로 문화예술교육이 변화되고 어려운 지점도 많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마무리 발언해주세요.

박수연

‘나는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잘 만들고 있는지 말의 실수는 없는지 과연 내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를 아이들이 집중하면서 보는지, 만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박숙희

저는 코로나든 코로나 아니든 교육을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교육해야 할 가치 있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나 특별수업에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많은 미디어에서 접해져 있던 것들을 실행하는 걸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항상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이들이 좋아해야 한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 학교에서 하지 않아도 연예,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건데 저는 교육적 가치 있는 것들, 개인적으로는 전통이라는 것 세계 민속춤 보면서 문화와 역사와 철학이 담겨있는데 나온 이야기가 저에게는 스스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소수민족이 대단하다. 전통은 훌륭한 요소들이 많구나! 이것은 주입식이 아니라 그걸 보고 배워진 건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것, 흥미가 아니라 교육할만한 가치가 있는 걸 아이들 눈높이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게 숙제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다. 내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나, 눈높이에 있냐입니다.

호중훈

그동안 제가 글 써보면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모여서 귀한 말을 해주고 이걸 담아서 이야기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글은 항상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실천적인 것을 담아야 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언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소리들을 어떻게 하면 현장의 어려움과 좋은 미래를 담는데 유익한 글로 쓸 건지 고민해서 진심이 담긴 글을 쓰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 지원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이다. 주체와 문화예술교육은 다르지 않다. 선생님들이 느끼는 고민과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좋은 말씨들을 진정성 있게 담아서 잘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인터뷰 기록

일 시	2020. 10. 18.(일) 17:00~19:00
장 소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참 석 자	- 모더레이터(1인): 추미경(문화다움 대표) -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3인): 김상규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플레이 대표) 오선미 (한예술치료교육연구소 소장) 현혜연 (중부대학교 사진학과 교수)

추미경

이번 '코로나 19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현장지원 방안'에 대한 이슈 분석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 분야별 현장 당사자들과 인터뷰(FGI)를 진행한 후,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참여하신 분들이 모든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대변할 순 없지만,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코로나 19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와 향후 어떤 기대하고 있는지를 각각 하시는 활동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삼아서 이슈로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19로 인해서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처한 상황과 변화 그리고 받은 영향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현장과 잘 맞게 하였는가?' 마지막으로 '향후 적절한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에 있어 어떤 지원이나 방법이 필요한가?'

위의 질문을 고려하셔서 각 단체가 코로나 이후 겪은 변화나 어려움 또는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단체 대표로서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규

저는 우리 단체가 작년부터 진행한 활동과 올해 계획한 활동, 어떤 변화 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연구소 플레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흥원과 같이 부처 간 협력사업을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이고, 서울문화재단이나 다른 재단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한 것은 5년 차가 됩니다.

진흥원 지원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국군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했고, 올해는 지원받는 분야를 여러 분야로 신청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방과 후 청소년, 군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과는 꿈다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전, 올해 새롭게 시도해보고자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진흥원에서 단체별로 온라인 교육을 대비하는 시간을 주어 그 시간 동안 강사들과 온라인 교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교육을 전면 진행하지 않고 절반은 대면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8월 2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어렵게 되어 지금은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되, 학생들이 해당 시간에 실습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여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하고, 실습 결과물을 받아와서 다음 회차 콘텐츠 기획할 때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모여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문화의 집에 부탁해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할 때 필요한 재료, 꾸러미는 학생들이 수업 전에 문화의 집에서 받아가서 실시간 수업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워서 5회 분량 꾸러미를 준비하고 최대한 아이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의 집이 다시 문을 열면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되 아이들이 방문해서 빈방에 한 명씩 들어가서 직접적인 대면 강의는 아니더라도 준 대면 강의 형태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사분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므로 더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미경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은 진흥원 지원사업뿐 아니라 많이 확장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기 상태 모드로 되는 경향이 있고, 온·오프 블렌디드로 하기도 하고 실시간 수업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상규

저희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차용을 해서 대입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에서 강조하는 소통, 함께하는 작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진행할 때 그 부분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추미경

경제적 어려움은 어떠세요?

김상규

6월까지의 기존의 강사분들이 수업하기로 약속해서 그 요일에 일정을 비워두고 있었으나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 강의를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주변 강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담으로 이야기할 때 이번 달에 20만 원 들어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지원 단체마저도 당황하고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흥원에서는 학교 예술강사에게 강의를 일부 선지급하여 강사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긴 했으나, 저희 같은 단체에는 적용될 수가 없어서 수입 없

이 진행되었고, 10월, 11월인 지금은 예정되어 있었지만 진행하지 못했던 강의가 물리게 되고 다른 곳과 일정이 겹쳐서 일요일까지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금전적인 문제는 좀 해결되었지만, 모두가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사분들 대할 때 조심하고 배려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미경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느꼈을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선미

저희는 5년 차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020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라고 한다면 참여 활동 방법만 변경되었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 활동으로 100%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치유사업이다 보니 외상 대상자를 만나기 때문에 100%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자들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차리기 전에 강사들의 온라인 프로그램 인식 차이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현장 중심 선생님들이 많으므로 온라인에 대한 불편감, 이해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 인적자원에 대한 변동사항도 있었고, 강사들이 중간에 온라인 상황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적자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던 게 일차적 문제였습니다. 강사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현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문가와 온라인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하였고,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기반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추미경

예술 치유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소수인 경우가 많겠네요?

오선미

폐쇄시설의 경우, 인원이 많은데 보통은 집합해서 영상을 상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저희는 소수의 인원으로 제한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유가족의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을 본인이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기 문제를 풀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미경

비대면이 기회적인 요소로 작동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오선미

처음에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작품활동을 하며 과정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았다고 하면, 간접적인 매체가 끼어들면서 상호작용을 끌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고민이었는데, 참여자가 안전감을 느낀다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민이 덜어졌습니다.

추미경

그럼 경제적으로 영향을 못 받으셨나요?

오선미

저희가 봤을 때는 강사의 온라인 접근성의 차이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프라인 중심 강사님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게, 콘텐츠 개발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프로그램 접근에서도 본인들이 불편해하시거나 거부적 반응이 있다 보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미경

김성규 선생님하고는 조금은 반대의 상황이기도 한데 강사 선생님들끼리 워크숍을 중간에 진행해서 대처했다고 봐야겠네요? 예술 치유라는 영역 자체의 특성도 있고.

오선미

이전에는 심리학적인 상황과 치유적인 접근 방법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매체 전문가와 협업이 없었으면 진행되기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혜연

저는 단체 대표로 온 건 아니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계속 운영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단체가 2개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단체나 강사 현황 실태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교육 매체도 바뀌고 방법도 바뀌어 처음에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광역 문화재단에서 비대

면 관련 지원사업 공고가 났고, 사업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어 유리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어디나 가서 사업을 잘 팔 수 있는 사람들은 활동도 많고 지원도 많이 받았으나, 그런 것에 어려움을 겪는 강사들은 지원받기 어려워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 입장에서는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저희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감각으로 만들어지는 재미있는 마을 만드는 사업이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1년 차는 마을과 광장 만들기, 2년 차는 랩 기반으로 마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을 만들기, 3년 차는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경제 활동이 목표였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공동 작업인데, 코로나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니 기다리다 6월이 지나면서 전면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8주 프로그램을 5주로 줄여서 진행하였습니다. 5주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 지구적인 5개 환경 상황을 설정하고, 그런 환경이 있는 마을에서 천년만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각자의 마을을 만드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꾸러미를 2번 전달했는데, 1번은 지속 가능한 마을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기를 활용한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중심 꾸러미를 보냈고, 두 번째는 마을 만들기 공장용 꾸러미를 수료증과 함께 보냈습니다. 수업은 줌(zoom) 화상을 활용해서 진행했고, 중간에 아이들이 꾸러미 만드는 것은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줌(zoom) 앞에 2~3시간 앉아있는 것은 피로하다고 생각해서 40분은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40분은 선생님은 줌을 켜봤지만,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아이들이 만든 것들을 사진으로 올려 아이들과 소통하는 장치도 다각도로 만들었습니다.

기획자로서 말씀드리면 강사들에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강사비 외에 연구비를 책정해서 더 드렸고, 강사에게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는 방식을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강사들은 새로운 미디어를 가지고 해야 하니 새로운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반응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일단 초등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강사님들은 힘은 덜 들어 했습니다. 현장에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아이들 에너지가 있어 강사분들이 조용

히 집중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데, 오히려 강사님들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위해서 적정 기술을 뭘 쓸까?’와 같은 공공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세심하게 이야기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 지점에서 옆에 없으니까 지도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왁자지껄 떠들고 새로운 친구 만나서 친해지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제 끝나면서 놀랐던 것은 코로나 19로 비상상황이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마을을 잘 만들었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결과물도 너무 잘 만들었고, 아이들이 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 적정 기술과 미래적,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내가 성장한 것 같다고 남긴 글을 보았습니다. 끝나면서 화상으로 인사할 때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올면서 헤어지는 인사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하며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기획자인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반면 이 상황을 겪어보니 사회적 격차가 커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적응하려면 부모님이 옆에서 좀도 연결해줘야 하고, 이 시간에 쓸 수 있는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비디오도 찍어서 편집도 해줘야 하는 등 양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실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알 수가 없어서 초등 5학년인 우리 아이를 참여시켰는데, 우리 아이는 옆에서 하나도 도와주지 못했더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옆에서 뒷받침 여부는 이해와 주도적 실천의 차이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미경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다양하게 현상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모이신 3분 중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플레이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김상규

저희는 올해 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했었기 때문에 저희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멈춰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추미경

문화예술교육연구소 플레이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타격이 컸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라인 소통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시고, 오선미 선생님의 경우에는 과정의 계기를 통해 가능성을 봤고, 현교수님은 온택트를 구체화시켜 온라인 소통 방식을 구체화했고, 거기서 문제의식은 미디어 기반이 되는 곳과 안되는 곳의 차이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나의 문화예술교육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요소 말고 문제의식 위주로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김상규

저희도 미디어 기반의 교육이다 보니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혹은 온라인 실시간 방법에 대한 정체와 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을 때 우리 단체와 만나게 되는 학교에 파견되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측에서 온라인 콘텐츠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르지 않아서, 온라인 콘텐츠도 제공하고 해당일에 학교에 와서 상주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접촉을 줄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인데 불합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특정 한 학교의 상황이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어 강사가 학교 측에 운영단체의 지침에 따르겠다고 말한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 교육형태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학습자에게 폭력적인 교육형태입니다. 예술프로그램이라는 건 참여하다가 망상도 하게 되고 여유의 시간이 있는데 온라인 실시간은 상대방에게 상시적으로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있어 중압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 교직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습자면서 교수자의 입장에 있는 학생이 있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해 물어보니 그 학생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도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는 사람들 반,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 반이라고 했다.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조건을 맞출 수 없는 환경의 아이들도 있고, 자신의 사생활 공간이 다른 동료에게 오픈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 아주 어린 학생, 성인은 부담감이 덜하나, 사춘기 여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예술교육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사적 공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

고 신경 쓰게 되는데, 온라인 실시간 폭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 여학생이 참여하면 크로마키 천을 제공해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술교육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온라인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온라인 실시간 영상을 편집하는 역량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에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 받으려면 며칠 전부터 부탁해야 했는데, '알집 톨', '프리미어'라던가 하는 편집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능력이 좋아졌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술단체 강사분들은 온라인 콘텐츠, 실시간보다는 대면 교육이 우선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학습자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온라인 콘텐츠 교육을 계획은 하고 있으나 대면 교육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선미

부정적인 측면은 치유 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집단의 문제에 있어서 내 문제를 타인을 통해서 축소할 수 있고, 타인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시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집단이 주는 힘에 관련된 것과 공감에 대한 공유의 기회는 축소되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장소적인 제한이 많았는데, 식당이라던가 아무 곳에서나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진행되다 보니 참여자에게 안전한 공간에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줌(zoom) 영상을 동의하는 가족은 줌(zoom) 영상을 통해서 접근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동영상을 밴드에 올려놓고 전화상담을 통해 동시 진행하여 복합적으로 접근하였고, 여기서 고민한 것은 문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나 인터넷 활용, 디지털 매체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는 언택트의 상황이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해성의 원인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워크북이나 키트를 배송하여, 문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영상이 아닌 워크북을 통해 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전화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까지 해서 나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과연 문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치유적인 상황과 문화예술적인 상황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 저희가 생각한 것은 언택트라는 것

은 언어적 전달이 아닌 연결의 키워드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닌 공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접촉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올해 슈퍼바이저 역할 하면서 기획자의 역할, 연구기획을 함께 하면서 보니 강사들의 공간과 시간의 이동 에너지는 축소되었으나, 일주일간 참여자들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일시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추미경

전달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중요한 키워드 같습니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히고 나면 기술적인 면에서 편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동시간은 줄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다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이에 대한 비용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연히 고민되시겠습니다.

오선미

연구기획비를 선생님들에게 책정해드렸는데, 준비하는 상황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미경

현교수님은 격차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보태서 이야기해주세요.

현혜연

꿈다락 프로그램 참여자는 5~6학년이라 사춘기는 아니었어요. 온라인이다 보니 본인의 상황이 노출되어서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집에 있으니 그것을 인식이 못해서 위는 갖추어 입었지만, 아래는 속옷만 입고 온라인에 연결하여 전체한테 보인다든가 하는 사고가 있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종료 후에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바지 입고 수업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인식이 없으므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강사들이 학교에 모여서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어요. 강사들 사이에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했던 실천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규명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지만, 강사들은 모두 모여서 하면서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는데, 아이들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만 있었

던 때보다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이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 어눌해서 뭘 하는 게 싫은 사람들, 거리가 먼 사람들과 같이 지금까지 참여형 프로그램에 유입되지 않은 학습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상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도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하면서 강사 1인이 할 때는 마스크를 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하지만, 팀티칭을 할 때는 강사들이 모이면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다른 곳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시나요?

현해연

저희는 시각 예술 중심이어서 공간 차이를 두고 줌(zoom)에 각자 들어가서 따로 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했습니다. 같이하는 연극 분야는 마스크를 쓰고 하시고 케이스마다 다양합니다.

김상규

저희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수업할 때 강사가 2명인데 1명은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벗었더니 컴플레인 들어왔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고 감정전달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오선미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자체는 메시지 전달이나 상징성 유도가 많다 보니 작업을 해서 영상 제작을 1차하고, 줌(zoom)을 이용하여 집합으로 할 때는 주강사, 보조강사가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김상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처럼 같은 공간에서 준비하고 서포트 해주어야 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미디어 기반으로 미디어, 영화, 사진을 하고 있고, 진흥원 지원사업이 아닌 영역에서는 연극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계열은 영상도 그렇고 대부분 시연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강사가 공간을 분리하게 되면 시연이 어려우므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 감정표현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오선미

선생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어 치료하시는 분들이 쓰는 입이 투명마스크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감정전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규

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 단위로 서포트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체가 알아서 준비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진입하는 단체도 있으니,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경

이번 정책 사업에 신청했을 때 현장과 어떤 점이 괴리가 컸는지, 향후의 지원들, 교수역량, 교육환경이나 정책적인 피드백 등 향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규

저희는 올해 온라인 환경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흥원이 준비가 안 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행정적으로 늦게 처리해주는 부분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2차 교부금이 원래 6~7월에 나왔는데, 올해는 10월에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던 단체의 경우 강의료를 못 드리거나 수업 재료를 준비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맞추어서 진행하긴 했으나, 강의를 멈춰야 하거나 강의료를 지급을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행정적인 부분들에서는 급변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기존에 약속된 걸 지켜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술강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온라인 콘텐츠에 강화된 팀만 지원할 수 있는 변형된 형태, 기존에 하시던 분 중에 약한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내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등에 대한 정책적 미래 비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이런 걸 해보아야 하는 좋은 모델링 수업을 배우고는 있지만, 실제 제 주변의 팀들을 보면 연령이 높아서 온라인 환경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거나 아직도 대면 교육을 기다리는 팀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분들은 한 달 반 만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오픈되지 않은 팀은 수

행을 다 못하는 팀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단체의 역량으로 평가하지 말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유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년을 준비하면서 막연함 때문에 어려웠지만 만회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미경

교수역량이나 교수환경에 대해 필요한 의견은 없으신가요?

김상균

이런 환경 속에서 강사들에게 온라인 콘텐츠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지원사업도 공고하고 있는데, 현실은 예술강사 스케줄이 밀려서 포화인 상태인데 무언가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체 회의 자체도 늦은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강사들이 시간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뭘 하라고 하기보다는 강사들이 여유롭게 강의들을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서포트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이 연수 참여하면 식사도 공짜, 자는 것도 공짜이니 혜택이라 하지 말고, 강사들이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것은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고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강사분들이 재난지원금 못 받았습니다. 4~7월 강의가 없어서 수익은 없었는데, 예술강사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많습니다.

추미경

연수 참여비용을 지불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셨 습니다.

김상균

파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분들은 그런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서포트 차원에서 교통비 보조를 해준다든지 등에 대한 것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에 올리다보니 저작권 때문에 폰트 등이 제한이 있습니다.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받을 수 있다면 다양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선미

강사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강사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교육은 중요합니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예술강사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기 안정감 없이 진행된다 보니 해마다 고민하긴 하지만 또 연초가 되어 공모에 참여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 다시 잊혀지는 것이 아닌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이 정립되고 강사 등의 교육이 진행되어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현장의 계신분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해보니 자원이나 자료에 대한 접근도 중요합니다. 예술 매체에 더하여 미디어 매체가 추가 되다 보니 이중적인 복합매체 관련된 자원이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없으면 마음이나 지식만 가지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원과 자료 접근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단체나 강사에게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업구조, 녹화제작 플랫폼 같은 것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관이 알아서 찾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 수요자들이 받았을 때 차이도 있습니다. 완성도 있는 콘텐츠로 발전하려면 녹화제작 플랫폼을 제공해주면 기관이나 강사들이 안정감 있고, 콘텐츠의 경쟁력도 생기면서 문화예술 고유성 있는 프로그램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균

영상 플랫폼 어디에 올리시나요?

오선미

밴드를 지역별, 기수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상균

저희는 유튜브에 올리다보니 저작권 관련하여 영상이나 폰트, 음악들을 활용하기 한정됩니다. 유튜브에서 자체 시로 차단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다른 차원에서 영상 올리는 플랫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좀 더 다양한 것들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선미

저희는 이미지나 이런 것을 저희 자체 비용으로 결제하여 활용 중입니다. 사업비에 포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보니 연간 결재를 해놓아 주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런 것이 사업비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미경

온라인 기반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에도 본격화되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확장되는 것인데 그와 관련된 기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혜연

플랫폼도 필요하고, 제작 기반의 인프라도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 더불어서 아직 단체에게 기획비나 연구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서 기획비도 강사한테 뭔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만 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획비, 연구비 현실화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열정만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미경

기존과 달라진 환경이니까 기획과 연구비가 완전히 다르게 필요하네요.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로 하다 보니 저작권 이슈가 많은데 그런 풀을 공유할 수 있거나, 이를 진흥원이 제공해도 좋고, 단체만의 특성이 있다면 일부를 지원해주는 확장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규

한가지 빠진 이야기가 있는데, 전체 프로그램 중 체험활동 부분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공연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험 삼아서 갈 수 있는 단체는 많지 않을 텐데 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넣어야 할지, 그렇다고 해서 작은 모니터 안에서 감상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활동에 대해서도 온라인 콘텐츠 교육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언급해봅니다.

추미경

체험해야 하는 곳들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던지기 쉬우나 문화부나 진흥원으로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정리해놓으면 단계적으로 풀어가고, 코로나로 새롭게 제기되는 격차의 문제, 사적인 측면, 교육구조가 가질 수 있는 폭력성과 제한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고자 했던 소통이나 정서감, 연결 같은 부분들을 달라진 환경 속에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양한 온택트 방식에 따른 교육의 기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여 원고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 인터뷰 기록

일 시 2020. 10. 14.(화) 17:00~19:00

장 소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참 석 자 - 모더레이터 : 김혁진 (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연구위원)
- 기관관계자 : 김영경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리), 이희영 (강릉보육원)
조현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팀장)

김혁진

지역을 보니까 강릉 계시고 인천 계시고 서울시에 계시고 저도 지금 집은 인천인데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요. 저희가 동서로 만났네요. 화상으로 하다 보니 소리가 자꾸 커지고 말을 또박또박해야 알아 들리니까 부드러운 분들인데 말하다 보면 딱딱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서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올해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관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영

안녕하세요? 강릉보육원의 생활복지사 이희영입니다. 저희 보육원은 2008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저는 2016년부터 사업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연극을 계획했는데, 강사님을 잘 만나서 잘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고 대면으로 하고 있다가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영경

저는 인천문화재단입니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전국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인천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은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자체

랑 연결된 사업을 두루 하고 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생애전환, 유아문화예술교육 이런 식의 사업들을 센터에서 하고 있고 제가 올해 담당한 사업은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이랑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시민문화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호

저도 진흥원의 사업 분류로 보면 강릉보육원과 같은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희영 선생님은 대상이 아동이라면 저희는 노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복지관협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저희 협회 회원기관입니다. 올해는 260개소가 290개 정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예술강사를 선발하고 기본적인 관리를 해주시다면, 노인복지관협회는 노인복지관을 모집해서 예술강사를 배치하고 복지관이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진

세 개 기관, 세 분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재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관한 예술교육 전체의 지원을 맡은 거 같고, 노인복지관협회에서는 진흥원과 현장 복지관 간에 예술강사가 선발되면 복지관과 매칭을 하고 사업 관련 자원을 관리하는 중간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보육원은 실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현

장인 것 같네요. 보육원에 오시는 예술강사님은 강릉에서 활동하는 분을 만나는거죠?

이희영

아니요. 저희는 예술강사가 원주에서 오십니다. 강릉 지역 예술강사는 미술 분야만 있으셔서 계속 미술을 하다가 올해 연극을 신청했습니다.

김혁진

세 분이 기관의 유형을 대표하거나 지역적인 특성도 있어서 말씀해주시는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이야기 나누다 보면 현장 기관 지원의 매개 기관, 정책과 아울러 지역의 지원하는 종합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반적인 기관에서의 예술교육 전체를 말하기보다는 그 초점을 이슈리포트 주제인 ‘코로나 19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현장지원방안’으로 잡아 왔는데 온라인 상황, 비대면하고 온라인 하고 동일한 말은 아니거든요.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는 오프라인 비대면 활동이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언택트라고도 하는데 온라인 대면 표현 쓰는 재단도 봤어요. 비대면 상황에서 특별히 그중에서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예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 기관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런 입장들을 나누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방식과 관련해서 질문이 비슷한 순서로 가야만 현장에 계신 분과 기관에 계신 분들 비교도 되니 조금 딱딱해질 수 있지만, 질문지 드렸던 부분 중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 개인의 예술 향유 과정이나 예술교육의 개인적인 참여 부분에 관한 질문들로 되어 있고 밑에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시설 운영자, 기관 담당자로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한 경험이나 지원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개인에 관한 이야기는 짧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생각하는 예술교육의 상황, 업무를 떠나서, 온라인 예술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코로나 상황이 내년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코로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기반 예술교육의 방법, 블렌디드 등 그런 점에서 현재 경험만이 아니라 의견을 주로 말씀해 주시면 정리할 때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인천문화재단 김영경 대리님은 예술교육과 관련된 본업을 하고 계시지만 두 분은 본업은 아니시잖아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꼭 예술교육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하는 업무 일상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조현호

일단 객관적인 팩트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 사업 진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다 보니 2단계만 들어가면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휴관 상태로 들어가서 대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비대면을 조금 열어두긴 했는데 어르신들이나 IT나 온라인 상황에 친숙하지 않으시고 장비나 환경도 열악하다 보니 욕심내서 실행할만한 실무자나 예술강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너무 기다리는 분위기였고, 하반기는 광복절 이후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수용하고 장기전으로 감안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곳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이런 변화의 움직임에서 유연한 편인데 지방에 있는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이런 유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략적인 노인복지관이 이런 상황이고,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좀 보면 IT에 관련된 업무나 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관련 업무나 관심사들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개인적인 관심사들이 업무에 녹여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대 차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리자로 계신 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시켜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반면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뒤쳐지는 사람이긴 한 거 같습니다. 배우는 것도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줌(zoom)이라는 것도 처음 사용해보고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썼던 것들을 업무에 녹여냈던 첫 사례였습니다.

김혁진

세대 격차 문제랑 IT 친숙성이 나왔는데. 평소에 친숙했던 사람은 문제가 없죠. 조현호 팀장님은 그래도 평소에 가까워서 괜찮았는데 저는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김영경 대리님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으셨나요?

김영경

얼마 전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할 이야기 없다고 했는데, 편하게 이야기해도 잘해 주실 거라고 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도 괜찮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가 급작스럽게 와서 사실 전에는 온라인으로 해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알게 모르게 흐르는 공기, 거리, 이런 게 중요한 거여서 온라인으로 할 생각을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양상은 이전에 했던 것을 그 방식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도저히 못 해 이런 건 접고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했던 것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했습니다. 저희도 온라인으로 한 건 대체로 줌(zoom)으로 했는데 줌(zoom)이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연기되고 조정됨에 따라 계획하고 홍보하고 모집하고, 홍보하고 모집하고를 반복하며 시간이 가버려서 일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진행되는 일은 없었고 그 상황이 연말까지 쭉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온라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밀려서 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대면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온라인 고민도 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에서 제일 먼저 감염병에 대비되어야 하는 것은 교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늘 이용해야 하는 버스, 지하철에서 감염, 전파 방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사회적으로 먼저 고민되어야 하는 것 같고, 그다음 공공문화시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공문화시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지, 지금까지 보면 코로나가 심화되면 공공문화시설을 먼저 닫았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민간에서는 운영되는데 공공문화시설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공공 쪽에서 대면의 조건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오프라인 그대로를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정도의 고민이 있다면 이전에 이런 고민을 안 해봐서 대체하는 방법이 아닌 온라인에서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특성에 맞는 장점을 잘 살린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과 해법, 프로세스 그런 걸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혁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통적인 상황 같습니다. 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3월에는 전혀 하지 못하다가 그나마 6~7월 대안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온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과정이 함께 되어야 하는 것과 이에 대해 공공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이희영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 19가 일상을 모두 망쳐버린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이 되었는데 한 해가 그냥 흘러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 자체가 아동 양육시설이다 보니 아동들이 저희 원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외부 강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것마저 아이들에게 뺏어간 코로나가 야속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끝나나 싶어요. 다들 2~3년 정도 더 봐야 안다고 하시는데 문화예술을 온라인만으로 한다는 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온라인 콘텐츠만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김혁진

자료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예술 활동 자체의 나의 경험에 대한 개인적으로 여쭙 보고 싶어요. 김영경 선생님 본인은 공연이든 뭐든 평소에 많이 다니세요?

김영경

평소에도 잘 안다닙니다.

김혁진

코로나라고 해서 변화는 별로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김영경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조심하십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여러 기회를 만들어도 요즘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서 특히, 노인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고 그

러다 보니 아무래도 참여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혁진

혹시 재단에서 교육 프로그램 말고 공연이나 전시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으신가요?

김영경

네,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전시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공연, 포럼, 세미나도 영상으로 찍어서 합니다.

김혁진

재단에서 제공하시는 것도 있고 별도의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영상물 제공, 포럼 실시간도 많이 하니까 개인적으로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김영경

네, 재단에서 진행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대화하는 것까지는 소화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반성 되는 건 예전에 만나는 게 허용되었을 때 그런 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소통하는 시간 적게 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를 그렇게 썼구나 하는 반성이 됩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면서 적어도 말로 표현되는 건 상호작용에서 난점이 있긴 하지만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대일로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무용이나 몸으로 하는 건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많은 강사분은 이걸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 그런 분도 많고 올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몸 움직임에 관한 건데 강사진이 온라인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고 재단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해서 시작한 게 있습니다. 몸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토론회, 포럼, 강의더라도 대화성으로 하는 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일부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는 건 효과적인 측면이 한 축에 있고, 딜레이가 있지만, 대화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 한편으로 온라인의 장점이 딱 그 시간에 있지 않아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냉정하게 보자면 그 퀄리티도 만만치 않았고요. 오프라인에서 하던 걸 찍어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정리되고 화면도 콘텐츠도 그렇고 온

라인의 공간 제약과 시간 제약을 넘어서 수 있는 접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 그런 걸 시도하지 못했던 것은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사분들은 강의 활동으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인데 영상으로 제작된 강의가 게시돼서 반복되면 그분들이 이외의 강의를 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니, 내용을 깊이 다루지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실시간하고 공개하지 않는 식으로 해오고 있는데 온라인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실시간의 반응이 좀 적어도 되는 콘텐츠의 부분은 다른 방식의 유통을 하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혁진

앞에서 말씀하셨던 밀려서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의 맞는 콘텐츠는 어떻게 될 것인가. 뒷부분으로 가면 그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공 제약 같은 경우도 온라인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인데. 다른 것보다는 교육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으셨을 텐데 직무교육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재단에서 꼭 받아야 하는 원격 교육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김영경

재단 직원들 받습니다.

김혁진

보통 원격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만들어진 콘텐츠가 맞죠?

김영경

전부 다 실시간이고 동영상도 원격에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김혁진

예술 활동이나 원격 교육 경험들이 있으시면 판단도 괜찮고 장단점도 말씀해주시면 같이 합쳐질 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예술 활동이나 그렇게 많이 평소에 경험이 있으신가요?

조현호

올해는 있었고, 세 가지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평상시에 독서 스터디하는 게 있어서 책을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보는 편인데 올해는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전자책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서 책을 빌려볼 때 전자책으로 책을 빌려서 보는 게 많아졌고, 원래 둘이 반반씩 봤는데 올해는 E-BOOK으로 본 케이스가 많았고, 보고 나서 스터디나 토론할 때 줌(zoom)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소단위로 5~6명 독서 토론 같은 걸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 촬영에 취미가 있어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카메라를 들고 가고 했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영상 편집을 조금 더 공부하게 되고 한두 번 만들어보게 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에 올해 회장님이 취임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온라인 실시간으로 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상영해야 하는데 만들 사람이 없어서 제가 급조해서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 세 번째는 음악을 좋아해서 드럼을 칩니다. 사회복지사 안에 밴드가 있어 활동을 4~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사회복지사들을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고 저희 밴드도 참여하는 거로 해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모여 연주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플러스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 레코딩해서 만들어보려고 해서 지금 기록 작업하고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스튜디오 렌탈은 안 되고 집에서 연주한 거 녹음하면 음악 편집 프로그램 다룰 수 있는 형이 있어서 작업해서 마스터링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강에서 버스킹 공연 해보려고 연습을 다섯 번 정도 했다가 한강에 홍수가 나서 못 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경험이었습시다.

김혁진

역으로 계기가 되었네요. 협회도 직무교육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콘텐츠로 직무교육 방은 경험을 묶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조현호

저희는 회의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처음은 힘들긴 한데 이제 자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줌(zoom)으로 진행하는 변화 과정에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적응은 끝났습니다. 이 안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단계인 것 같고 회의는 좀 편해지고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저희는 지원사업이 많아 실무자 중심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서는 시도 단계입니다. 활성화되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시도하는 단계 정도입니다.

김혁진

이희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희영

작년만 해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을 보러 많이 다녔습니다. 강릉에서 하는 공연은 아트센터가 새로 생겨서 꼭 가서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근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올해는 전혀 못 갔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다 취소하고 못 가고 저는 너무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호 팀장님은 코로나 19로 계기가 돼서 많이 발전하신 것 같은데 저는 멈춰있는 것 같고 아이들 활동도 하나도 못 했습니다.

다들 힘드시더라도 많은 발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분들 하나도 못 오시면서 아이들이 거의 집에서 활동하는 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 교육하는 것, 생활관이 4동이 있는데 9명 정도 아이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니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걸 너무 겁내십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합니다. 제가 잘하지 못하니깐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제가 잘하지 못하니깐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조현호 팀장님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조현호

9월은 똑같은 1월이 그런 일이 있었다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경

이희영 선생님 거기는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이전에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건가요? 올해는 거의 안 된 거예요? 100이라면 어느 정도 되었고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고 하신 것도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는지 가까이에서 보셨으니깐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희영

저희 시설은 아동 양육시설이니깐 부모님하고 어린 나이에 아동 학대 같은 거로 인해서 분리된 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아이들이 기초적으로 많이 배워야 할 발달 시기에 많이 못 배우니까 언어적 표현이나 언어적 발달 같은 게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의 온라인으로 수업도 아이들이 따라가기

많이 힘들어합니다. 옆에서 일대일로 학교 수업을 진행할 때 선생님이 봐주더라도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하게 되면 아이의 언어, 대화할 때도 쉽게 전달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그렇게 못하니 봐도 봐도 안 되고 저희가 옆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어려워합니다. 연극 수업을 온라인 콘텐츠로 했을 때 제가 진행을 하고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 해서 울고 있었어요. 저한테 다가와서 선생님 못하겠어요. 울먹였어요. 설명을 제가 해주었지만 아이는 많이 어려워하고 다른 아이들과의 수업에 같이 참여를 잘 못 하였어요. 전부 다 같은 수준에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온라인 교육이 어렵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 데 아이마다 능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발달 수준도 있으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혁진

저희 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써놓는 중이에요. 언어는 말의 정보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뇌양스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 자체가 교감이라는 게 단순하게 말 주고받는 게 아닌데 이게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문제일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같이할 때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면 예술 교육하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모였을 때 만났을 때 느끼는 선생님이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소통한다는 게 몸짓, 뇌양스였는데 교감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숙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영경

보육원이요, 취학 전 아동도 있고 지금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까지 있나요?

이희영

저희 대학생까지 있어요. 연장이라고 해서 요즘은 대학교 입학하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까지 있습니다. 요즘 거의 대학교에 가면 졸업할 때까지 있습니다.

김영경

그러면 취학 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유치원에 가는 건가요?

이희영

만 4세 이상부터 입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 긴급보육이니 하시기도 하는데 요즘은 원에서 있어요.

김혁진

이번에는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스스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희영

저는 올해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대학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줌(zoom)을 이용해서 수업했고, 개인적으로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김혁진

바리스타 교육도 넓게 보면 문화교육이네요.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교육받을 일이 많지 않을 텐데. 조현호 팀장님은 어떠세요?

조현호

저는 의외로 없습니다. 동료들과 여러 가지 활동하느라 못 챙겼네요.

김혁진

사실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방법인 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들하고 전반적으로 비대면에서 온라인 활용하는 게 늘었는데 업무상으로 대부분 그랬을 거고. 다른 분들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조현호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이 참 감사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보조적인 수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자꾸 안 보니까 생각 속에서도 마음속에서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소홀해지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져 가는 제 모습들을 저는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주변 사람들 안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소규모로 보긴 하는데 확실히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 멀어졌던 것 같아요.

김혁진

현장에서 선생님들 느끼시기에 내가 수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말씀하셨듯이 실시간에도 장단점이 있더라 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이 좋을까? 어떠한 방식이 문화예술교육에서 활용하는 데 좋을까? 어느 게 좋다 나쁘다기보다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경험, 기관의 경험이 있을 텐데 문화예술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 효과적일까 보충해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영

검색해봤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장단점을 찾아보고 했는데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면 활동이 없어지지 않을 텐데 그걸 잘 활용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언어적 표현도 문제가 되지만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같아요. 시설 적인 면이나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게 안 되겠죠. 인터넷 검색을 해봤을 때 3D 장치를 활용해서 선생님과 하는 활동도 있다고 나왔던데 그런 건 비현실적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혁진

대면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실시간 형태 정도로 간다면 보완이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줌(zoom)으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좋은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김영경 대리님은 개인적인 온라인 교육 경험이 많이 없다고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라인 예술교육에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영경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 간의 대면 활동이 있을 것이고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트는 300년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아예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안전한 대면, 온라인 하는 게 어려운 게 있으면 보육원에 찾아가는 선생님들이 좀 더 각별히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고 관리를 잘 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문화예술을 다른 곳보다 먼저 열어

야 한다는 것도 그런 건 의미입니다. 훨씬 더 시급한 데가 있을 수 있지만, 공간 자체를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왕래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진행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이전에는 보통 강사 2~3명 학생 15~20명으로 세팅되었다면, 강사 1명에 10명 이내로 클래스를 생각한다면 관리를 해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면 주의자입니다. 조심하지만 대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온라인의 장점이 회의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술체험, 예술 경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문화예술 관련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누가 시키셔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영상으로 하는 건 어떤 정보나 지식 전달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감이나 혹은 다른 감각들 언어 말고 다른 감각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몇 해 전부터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교육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저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교육은 원시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온라인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혁진

온라인 교육이 나오면서 오히려 거꾸로 오프라인의 중요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데 보충할 방법으로 영상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것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정리가 되면 그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현호 팀장님 하셨던 방법이 딱 그 방법이에요. 모여서 하기도 하는데 동영상 녹화해서 모아서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모였다 헤어졌다. 폐쇄시설 경우 외부의 접근이 어려울 때 끝까지 참여자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도 반긴다고 합니다. 사람을 못 만나고 그래도 보육원은 선생님들 계시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희영

저희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잖아요. 아이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보내주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든 가능하죠.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아예 안 오니까 온라인 콘텐츠를 보내더라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혁진

시설 종류를 봐서도 결합형 방식하고 레이던시 같은 콘텐츠라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옆에서 도와줄 선생님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변수였겠네요. 노인복지관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였겠네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개인적인 질문은 단답형이 있어요. 코로나 19가 나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긍정적이었냐 부정적이었냐? 어려웠느냐? 어렵지 않았냐?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현호

기술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경험은 부정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의 제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각적인 것들은 더 강조되었지만, 시각 외의 것들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희영

코로나 19에 있어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거의 넷플릭스 같은 영상만 보게 되고, 시각적인 면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예술강사와 하는 연극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학교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연극 수업을 하게 되면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온라인 콘텐츠를 보면서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니까 학교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시각적인 면만 강조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김혁진

콘텐츠를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의 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보내서 실습 형태로 따라 하게 되는 게 옆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단순 보조자가 아니라 진행자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없으면 좋은 걸 보내줘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매개자 교육도 있었는데 온라인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 어떤 교육 활동 경험이 있냐고 물어본 건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하는데 반 정도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느냐는 질문이 있고요. 이걸 묶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

까? 장비 문제도 있고요. 개인차 문제도 있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특성, 결합하는 방식,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은 어떻게 맞출까? 전문성도 매우 필요해진 상황인데 보편화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적응도 되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기관의 이야기를 초반의 이해를 위해서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단 같은 경우 자체가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말씀, 상황, 다른 문화시설의 상황도 가능하시면 생활문화센터 같은 곳의 예술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상황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영경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보완하자면 저희도 많은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합니다.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많은 곳이 못하고 있고 계속 미루다가 온라인으로 했구나 하는 곳도 있고 아예 그것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혁진

상황이 다 개별적이네요.

김영경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보면 담당 직원들은 잘 안 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이런 정도까지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유치원 프로그램 있는데 주민들 만나고 노인분들과 하는 거여서 원활하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재단이 직접 하는 5064세대 신중년분들과 프로그램을 6개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온라인으로 못 한다 해서 미루고 있어서 7월이면 끝나야 할 게 다음 달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그중 영상미디어 만드는 것 하나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강사들 이야기 들으면 답답해하십니다. 이게 온라인 들어온다고 다 얼굴을 켜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화면이랑 마이크 끄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보고하고 있는지 알아챌 수가 없으니까 대면하면서 잘 못 따라오는 친구가 있으면 찔러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는데 그런 게 온라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게 제한이 되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으로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 때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했나? 마주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때도 선생님들한테 그런 걸 요청합니다.

계속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나 순서에 있어서 쪽 강의만 한 시간 하고 질의응답이 아니라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하는 게 재미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시간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개입할 수 있게 오시는 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방법적으로 보면 저희 사업에서 그렇고 전시나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 영화 같은 걸 차 안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시도도 많고 키트 보내주고 방법 영상으로 보내서 해보게 하고, 이 사례는 찾아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혁진

중간 기관 입장에서 복지관들의 상황은 코로나 기간에 노인들이기 때문에 보육원처럼 모여있는 게 아니라 방문형이잖아요. 노인들이 못 오기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어느 복지관은 하는 곳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들의 상황을 유형화시켜서 말씀해주세요.

조현호

노인복지관이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이용하고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한다고 보면 집에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의 집을 보면 온라인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이 없는 가정도 계시고, 스마트폰 자체를 활용하기도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스마트폰 활용을 교육단계부터 같이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단계는 생략한 채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해버리니 이용법도 모르겠는데 환경도 되지 않고 두 가지 난제가 같이 있다 보니 이게 될까? 하는 고민과 걱정,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그나마 장비 환경이 괜찮은 곳들이어서 방법적인 것을 보완해서 진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농어촌이나 이런 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비나 환경에 대한 구축이 사실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기관에 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과제여서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텐츠를 환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형태들이 예술강사가 동영상을 보내면 실무자가 참여자들에게 URL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주소로 들어가서 보는 형태로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역량이나 관심에 따라 참여도나 반응들이 천차만별이고 역량의 역동성을 끌어내려면 진행하시는 강사가 역량에 따라 변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이나 상황마다 다른 편차들을 줄여나가거나 상향 편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는 게 진흥원과 협회의 역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이렇게 하려면 의지와 보상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인 보상이라던가 활용하거나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행정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반기에 비대면 수업을 하는 곳도 있었지만, 강사비와 교통비 정산을 위한 행정적인 것을 위해 예술강사가 기관으로 와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행정이 현장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상시처럼 돌아갔다면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은 못 따라가는 상황이어서 이런 과제들이 매우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베이스로 한 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운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혁진

뒷부분에 지원 방식에 필요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신 건데, 나중에 디테일하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육원은 예술교육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연극을 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있으세요?

이희영

연극 프로그램 말고는 말고, 과학 교실이라고 해서 과학 배우는 거랑 며칠 전에 음악 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니까 아이들 만드는 키트를 보내주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시거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학원도 가야 하고 학습지도 하고 하지만 다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확진자가 조금 나타나서 외부활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혁진

지금 시설 자체를 폐쇄한 건 아니잖아요.

이희영

저희 시설은 아이들이 있어서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김혁진

직원들만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다만 구조 때문에 강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프로그램이 중단된 정도고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인 거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한 거네요.

이희영

네. 8월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술강사가 오셔서 아이들하고 3~4주 정도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셨습니다.

김혁진

다른 대체활동으로 바꾼 게 아니라 늦기만 했지만, 강사가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진행은 된 거네요. 그럼 어차피 협회, 시설, 재단도 그렇고 자체 결정보다는 지자체나 정부 단계에서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는 하고 싶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공공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은 따로 질문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제목만 참여 의향, 교육방식, 교육지원, 상호작용, 정책의결 이런 게 있는데 자료 한 번 보시고 하나씩 이야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중구난방으로 앞의 이야기 반복하셔도 괜찮고, 기기 문제도 있고 정책적으로는 세대 차이, 지역 차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시설 이용 따라 다를 수 있고, 옆에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하는 거지, 도와준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 아까 실시간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상황 같아요, 시설의 선생님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매개자 교육 같은 경우도 다른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온라인 예술교육에 관한 연수가 있다면 시설 담당자로서 이런 교육이 있다면 참여하겠다거나 여기 프로그램이 있는 데 있다면 기관으로서는 나부터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온라인 예술교육으로 가려면 이런 부분이 보장되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다. 한두 가지씩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네요.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경

김혁진 선생님 처음에 비대면이랑 온라인이랑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관련해서 정리된 개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혁진

그게 없더라고요.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제가 생각한 건데 비대면은 일종의 상황 같습니다. 상황이 내가 옆에서 지금 밀접하게 접촉하느냐 못하느냐인데 그 기준은 얼굴인데 얼굴을 봤냐 안 봤냐, 이런 게 대면과 비대면의 내가 처한 사람 간의 관계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원격이나 직접이나라고 하면 원격이라고 해서 온라인만 원격은 아니고 원래 원격의 시작이 호주나 이런 데서 머니까 학습지 보내준 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하고 엮이니까 온라인 원격 방식이 대세가 된 거고, 그리고 온라인은 일종의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같은데는 영상을 담은 USB 가져다주는데, 메일로 보내주면 보안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하고 하는 것은 라인으로 유선이나 무선으로 묶여있다는 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니까 오프라인 비대면인데 서서울 예술교육센터에서 했던 방법의 하나는 택배로 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집 앞에 키트 가져다주고, 서서울 예술교육센터는 재료를 집에서 보내주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창작을 하면 다시 받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비대면’이라고 용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에 서로 사람이 꼭 주고받는 관계가 꼭 온라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비대면이지만 서로 소통한다. 교류한다. 예술교육 활동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실험하고 있는 모습이고, 원격이라는 건 떨어져 있는 건데 떨어지는 방법도 온라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료만 보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온라인이 대체라서 결합이 되었을 때 여기서도 온라인, 비대면 붙인 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용어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대표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가 되지만 온라인이라도 대면적인 방법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도 하나의 고민일 수 있고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꼭 온라인을 활용, 이게 중요한 문제가 누구나 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매체 활용 기술이 떨어진. 내가 10명을 만났는데 2명이 매체 활용이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맞추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온라인 방법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높은 수준을 맞추면 2명이 소외되는 거니 그럴 때는 오프라인 비대면이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는 게 될 거다. 기술을 같이 높여주면서 환경 갖춰주는 게 병행되면 좋겠다. 원격, 비대면, 온라인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온라인인데 대면을 같이 가 그럼 이게 블렌디드 섞여버린 활동이 된다든지. 묶였다는 거로 해서 말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보든 아니면 유튜브에 올린 거를 나중에 보든 메일을 통해서라도 영상자료를 보내주든 여기에 초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의 생각을 들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영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될 때 진행하는 선생님의 역량도 높여야 할 것 같고 예술강사가 의도하는 대로 저희도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장비도 필요할 것 같고 실시간으로 할 때 예술강사가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만을 이용할 때 그냥 저희가 아이들이 중간 입장에서 피드백하는 것이지 예술강사 입장에서 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에서 장비가 잘 갖추어져야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진

장비라는 게 진행하는 강사의 장비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학습자를 위한 장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영

교육을 받는 저희도 지금은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있고 있지만 그럴 때 저희는 진행하는 프로그램 실인데 여기를 강제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다든가 해서 예술강사도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저희가 진행하는 게 잘못되었다 피드백도 줄 수 있고, 아이들 활동하는 걸 보면서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조현호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대한 대책들은 마련하고 있는데 대면과 관련된 좀 더 소규모 단위의 프로그램 형태들이나 사업 형태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저희 노인복지관도 문화예술이 아니라 대부분 서비스가 개별에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는 아닌 상황이고 예산은 한정적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목적은 알겠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프로그램, 집단성이 위험하다 보니 휴관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규모 단위의 2.4명 교육 활동이라던가 그런 면으로 좀 더 대면을 커버할 수 있는 고민과 예산과 방법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분반을 안내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결국은 20명, 15명이 현실적인 참여자를 더 세분화하게 가려면 이런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혁진

이것도 중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20명 못 모이면 2~3명은 되지 않냐? 4명으로 집 근처에서 라던지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할 만한 부분이네요.

김영경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접촉 주의자여서 그런 말씀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에 아이들 있는데 어쩌다 가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반가워하며 막 달려옵니다. 안기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은 그런 만남 자체가 중요한 거여서 그런 방안을 어떻게든 제한적으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온라인 관련해서는 이미 여기 제시된 것에 제 생각이 넘지 못하는데 예술 창작하는 사람이나 교육 활동하는 사람도 온라인을 통한 만남의 가능성에 관해서 공부해야 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나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제작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개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복지관에 온라인 교실 만들어서 거기 5명 오시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소회의실, 온라인 회의실도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지금 저는 유튜브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시키지 않았는데 올리는 거는 자기만족도 있지만, 나중에는 개인 활동에 대한 대가로 돌아오기도 하는 거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는 진흥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콘텐츠 만든 사람에게 차후에 콘텐츠 보는 사람이 많으면 시공간을 넘어서 접촉할 기회를 많이 보면 콘텐츠에 참여하신 분께 돌아가는 시스템(유튜브처럼), 그거보다 더 나은 공공에서의 대안이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현호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행정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의하려면 회의계획 세우고 딱 어느 장소에 모여서 뭘 하고 확인받고 대가를

주고 이랬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그 기준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온라인은 쉽게 빠르게 일상적인 교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는 돈을 못 쓰게 하니까 행정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김혁진

결재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김영경

네. 바뀐 시대에 업무의 절차는 이전방식과 마찬가지로예요. 저희도 강제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런 저변의 환경, 이런 것에서도 변화는 있겠다. 채택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자료가 모두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김혁진

장비도 문제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만남에 관한 문제, 운영하는 사람과 매개하는 사람의 교육 문제, 플랫폼, 행정 부분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온라인 콘텐츠로 만드는 게 내가 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여주면 생동감은 있을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가 이걸로 성공했습니다. 유명 강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찍어서 보낸다고 감동적일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상당한 정도로 기획이 되고 카메라나 조명 갖춰서 우리 네 사람도 밝기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장면을 만들더라도 온라인에 맞는 방식으로 기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제작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의 미디어실을 제공해준다거나 해야죠. 지난번에 문화부에서 심사하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한 걸 염두에 두고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예산을 거꾸로 줄여온 거예요. 현장에 안 나가니까 비용은 줄여서 책정한 거죠. 근데 심사 결과는 반대였어요.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예산 계획을 모두 채워온 것을 선정했어요. 그러려면 제작하는데 이 비용 가지고 안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면 뭐 하나. 청소년뮤지컬인데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찍는 거하고 세 대하고 다른데, 오히려 질을 높이자 했어요.

생각해보면 개인의 장비도 문제지만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비도 인터뷰하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가지고 해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비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추가로 하면 퀄리티의 문제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교육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장비 문제도 있

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해주신 거라서 세 분이 잘 매칭해 주신 것 같아요. 지역의 지원, 중간 관리, 현장, 대상이 마침 노인, 아동 그리고 이용시설, 생활 시설 등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말씀을 교차해서 들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을 전부 글로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2페이지 정도로 정리할 겁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나오는데 좋은 아이템,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해주셔서 제가 힘이 덜 들 것 같아요. 충분한 의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면으로 볼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이슈분석 제3호(2020-11)

현장에서부터 듣는다

‘코로나 19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현장 지원 방안’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20. 11. 30.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및 관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운영 및 디자인제작 (주)시소랩

홈페이지 www.arte.or.kr

문의 02-6209-5900

등록번호 : KACES-2040-R00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면 비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금지됩니다.

